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증인 철회의 건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요청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증인 철회의 건 1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요청안 1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회 1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철회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정계성 증인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그 요구를 철회하려 합니다.

정계성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요청안

3.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회

(10시32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간사 3분 드려요.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정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원회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정무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간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면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후보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냥 철거반장으로 오신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또한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재위는 안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직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이양수 위원** 민주당 안 하시면 제가……

○**위원장 윤한홍** 이양수 위원님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지금 간사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아마 임명이 10일에서 15일 정도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저분 열흘 근무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가요? 인사청문회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김용만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이양수 위원** 그럴 리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신가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어제 당정 협의는 사실이 아닌 게 발표가 된 건가요?

○**김용만 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랑 얘기를 해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것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양수 위원** 저분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면, 사실 야당인 우리가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또 정부 여당에 협조 안 한다고 그래서 질타받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 설치법이나 은행

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정무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준현 간사님께서 어제 그 회의에 참석도 하셨고 언론 대응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하고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위원장님, 민주당 정무위원들하고의 간담회 내용도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재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라는 부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국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안을 발표를 했어요.

타 조직에 흡수 편입될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진위를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청문회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께서 한번 답을 주시지요.

○강준현 위원 어제 당정 간담회 한 건 사실이고요. 논의됐던 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인데 그중에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분리 관련해서 어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핵심은 국정기획위에서 안이 나온 거거든요, 금융위 분리하는 문제를. 그래서 안을 가지고 어제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마도……

이게 법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금융위 설치법이라든가 또 은행법이라든가 지금 강민국 간사님 말씀하신, 9000개 조문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우리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들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게 개정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심사하고 할 내용이라서, 일단 지금 기획안이니까 아마도 이제 정부 측에서 저희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양수 위원 그러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무근인가요?

○강준현 위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홍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지. 25일 처리하는 건 아닌……

시간 드리세요.

○강준현 위원 어제 논의 단계에서 25일 날 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논의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 얘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당만 아니고 야당, 여당 다 합해서.

○김용만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야당이 누가 있었나요?

○강준현 위원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윤한홍 앞으로요?

김상훈 위원님 더 필요하신가요?

○김상훈 위원 강준현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금융위가 편입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편입된다면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건 이것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정무위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만약에 편입된다면, 불과 보름 상간에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다 하면 이게 웃음거리 아닙니까?

○김용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김용만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아까 ‘뭘 모르고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가 어찌고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여당 의견만 듣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확실해야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런 건 좀 과격한 것 같고 분명 정부 측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맥락에서 과연 그럴리가 있겠느냐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윤한홍 이양수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이양수 위원 김용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가 해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논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강준현 간사님 어제 발표에 의하면—논의한다 그러셨으니까—해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면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면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경우 확률은 반반이라고 치면 저분이 열흘 근무하고 그만둘 확률도 반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흘 근무할 확률이 반인 사람을 데리고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게 지금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시고, 간사님 말씀이고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거야, 여야에 다 얘기할 거야’ 이러는데 논의하세요.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이랑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다음에 저분을 인사청문회 해서 기관장으로 앉혀서 근무를 하게 할 확률이 열흘이 아니고 당분간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강준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세요.

○**박범계 위원**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해서 해체니 또는 열흘짜리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미 있은 이후 즉 국정기획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가 된 이후에 이억만 후보자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신 거란…… 이억원, 미안합니다. 이억원 후보자를 지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은 금융위 해체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열흘짜리도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후보자를 상대로……

금융위원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 금융위원회도 존치하지만 조직개편의 폭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당정협의 간담회에 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개편을 찬성할 수도 있고 또는 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금융위 설치법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법도 손을 봐야 되는구먼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이 엄연히 우리 정무위에 계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논의하지 않고서 금융위 개편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오늘 그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의문 되시는 부분을 질문하고 후보자로부터 소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 하실 이야기 다 하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민주당, 여당이지요.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어제 정무비서관도 참석하신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강준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다면 이게 그냥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단계보다는 강준현 간사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용산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공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5일 날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만들면 25일 날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 설치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 정무위에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다, 기다를 확인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민국 간사님하고 강준현 간사님이 시간을 좀 가지고 용산에 한번 확인하고……

○**강민국 위원** 조금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윤한홍** 예, 조금 정회했다가 의사를 주십시오, 확실하게. 그리고 해야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거기다가 저는 이런……

○**김남근 위원** 저……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요.

○**김승원 위원** 갑자기 윤석열 정부 생각이 나네, 용산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은 국회가 해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요.

거기다가 당과 용산이 협의를 하는 게…… 오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어제 또 그렇게 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그것도 기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용산의 발언 내용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하세요.

김남근 위원님 시간 드리세요.

○**김남근 위원**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에 관한 기능과 감독기능에 관한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논의가 어제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있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할 때도 그 주체 중의 한 명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것을 야당 위원님들도 물어보셔서 지금 금융위원장후보님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든가 조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논의하는 과정에 임명이 되시면 금융위원장도 정부 내에서 그 논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에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기능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할 거니까 그것은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후보자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내용이지 정회를 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래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훈 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본인은 모른다고 그럼다.

○**김남근 위원** 아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후보자한테 어떤 의견인지 모르고……

○**김상훈 위원** 물어봤다니까?

○**이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조직 개편 진행되는 것은 저분은 사실 그렇게 발언권이 없으세요.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건지도 물어보셔야지요, 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잠깐만.

○**이양수 위원** 열흘 만에 그만둘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잠깐만.

○강민국 위원 그러면 양당 간사가 얘기를 하게 조금만, 오래 말고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잠깐, 여야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야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추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속개하기 전에 의사진행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강준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강준현 위원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편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당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금융위 해체를 말씀하는데 이는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설사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 수록 금융위원장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예,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십여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실 분의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그런 의문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본 청문회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대로 정말 십여 일만 할 위원장 같으면 이 인사청문회가 사실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요.

차후 만약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돼서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조직법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상반된 내용이 온다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두고 저는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강준현 간사님께서 ‘금융위원회 해체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하신 자료들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이억원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모두발언 전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잠깐 앉으시고……

1분만 주세요.

짧게 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짧게요?

○위원장 윤한홍 예.

○이양수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게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 제출하고 절반 정도를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전부 다 이유가 그냥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 이것은 사실 다른 후보자들도 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출입국 기록 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들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인 장녀의 이해충돌 여부 있는 것, 이해충돌 여부

는 사실 확인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몇십 건 되는 것은 놔두고 이 3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하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챙겨서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억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 또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정체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 환경의 변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활력이 감소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생산적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빈번한 금융사고와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야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규제, 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 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인 혁신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

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BDC, STO 등 벤처·혁신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도입,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주식시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된 상법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은행 점포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주택연금제도 개선 등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층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준을 유지하겠습니다.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대책도 즉각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도 그간의 확립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 리스크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국회의 이해와 뒷받침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긴밀히 상의드리며 국민과 우리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30여 년 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금융산업

이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실물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님,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홈플러스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관련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홈플러스 직접적으로는 한 2만여 명 되고 또 관련 협력업체라든지 입점업체, 전반적으로 한 10만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결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MBK도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서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약속을 어기고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청산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자기 돈은 전체 7조 5000억 중에서 2조 5000억밖에 안 되고 5조 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인수를 해서 상당히 위법하다 내지는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 인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점포들을 막 매각하면서 인수대금들을 갚아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홈플러스 문 닫겠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1조 투자해 가지고 정상 운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를 챙길 것 다 챙기고 빠져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예요.

최근에는 회사 정리절차를 앞두고, 3월 1일 날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했는데 2월 달에만 한 2000억 넘는 그런 전단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 사기적 금융거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4월 1일 날 검찰에 사건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감원이 그래 놓고 재재를 안 하고 있어요. 재재를 해야만, 기관경고를 받든 뭘 받아야만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MBK에다가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금 회수하겠다 이런 조치를 할 수

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알고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MBK가 운용하는 게 MBK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LP 자금을……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국민연금이고 은행, 증권사 이런 데가 투자해서 하는데 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해야 되고 운용사 선정지침에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을 취소해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다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2조 5000억 정도를 국민연금이 MBK가 하는 사모펀드 11개에다가 출자를 했는데 그중에 1조 3000억은 회수가 됐고 계약상 지금 7000억을 당장 넣어야 될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5000억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감원이 제재를 안 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MBK 같은 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침을 못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MBK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전단체 문제 같은 경우는 사기적 부정행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전임 위원장이 수사 평계 대면서 제재를 안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진작에 금감원이 제재했으면 MBK는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축출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같이 10만 명이 걸려 있는 사업장들을 사실상 청산시키겠다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행동 못 하지요.

사실 MBK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국회도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것도 문제였지만 금감원이 제때 제대로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도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수사 기다려 보겠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왜 기다려요? 지금 금감원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넘긴 건데.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수사로 넘어가면, 이게 기관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외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그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새 정부가 아주 새롭게 보여 주는 중요한 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원장후보님께서도 취임을 하자마자 MBK 홈플러스 사태를 먼저 쟁여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MBK를 제재를 하면 그거에 따라 연속해서 국민연금도 투자 회수를 하거나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고

또 증권사, 은행들도 기관투자자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 MBK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가 제재할 수 있고 MBK가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를 망가뜨린 다음에 먹튀하면서 사실상 청산시키는 일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오를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MBK 이거 조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내용 잘 귀담아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억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 두 가지 꼭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여차피 야당에서 아마 후보자님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금감원의 성격을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과거의 사태와 대비시켜서 여쭤보려고 그립니다.

공교롭게도 강남의 소위 노른자라고 하는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두 번에 걸쳐 매입을 했어요.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두 번째 아파트 산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역대급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최초 매입 가격보다 훨씬 현재 나가는 소위 시세 가격은 굉장히 커요. 다만 후보자는 전셋집에 살면서 매입을 한 이후로 1가구 1주택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도덕적 비난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개발 정보를 혹시 입수한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 않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공직 생활하면서 외국 나갈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한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평생 집 한 채고요. 제가 두 번 집을 옮겼는데 제가 38살 때, 46살 때인데 그때 해외에 나갈 때였고 그동안에 조금 더 모은 돈을 해서 형편에 맞게 두 번 옮겼고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고 평생 거기 계속

있을 겁니다.

○**박범계 위원** 혹시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나마 좀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만 기재부가 세종시에 가 있는데, 원래 기재부 공직자였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소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지 않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기재부가 2013년도에 세종시 내려갈 때 다들 특별공급 분양받을 수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집이 한 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금융위와 관련해서 과거 금융위원장을 지낸 분 중에 혹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다들 제가 존경하고 항상 여러 가지.....

○**박범계 위원** 임종룡 위원장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압니다.

○**박범계 위원** 과거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것을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끝까지 반대한 분이 임종룡 위원장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개인적.....

○**박범계 위원** 임종룡 위원장 모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 시점에 어떤.....

○**박범계 위원** 모른다 하면 본인의 아파트 문제만 열심히 연구하고 나오고 금융위의 중대한 과거 사태에 관해서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임종룡 위원장이라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과거에 특검수사로 다 밝혀진 내용인데 삼성에서 삼성생명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분입니다.

반면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거 막을 수 있었던 사태 아닙니까,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

그것도 역시 공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하여간에 결과론적으로 다 금융당국.....

○**박범계 위원** 부산저축은행이 자기 대출한도의 거의 50% 이상을 PF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면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위치를 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뼈 아픈 실책이었다. 사후적인 소위 영업정지 시점도 늦었다. 그 이유가 뭐냐? 금감원에서 평생 근무한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임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금감원의 주요 돈이, 소위 돈이라는 게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받아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여론은 양쪽으로 나뉘져 있지만, 소위 관치금융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이미 법률에 의해서, 금융위 설치법에 의해서 사실상 공공기관화돼 있는데 운영자금은 다 피감독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빌리는 게 아니라 출연받아 쓴다. 그래서 금감원을 공공기관화하자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위 부산저축은행의 그러한 유착관계, 금감원의 공공기관화, 그 점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고는 사후적인 구제나 수습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 상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봐야 된다는 점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감원을 공공기관화할 거냐의 문제는 히스토리를 보면 공운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년 뒤인 2009년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까지 그 해제 상태가 지속이 돼 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방만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금감원은 나름대로 금융감독을 할 때 자율성이 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가 나름대로 거기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두는 게 낫다, 항상 논박이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보름 근무하고 집에 갈지도 모르는 금융위원장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일입니다. 너무 출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금융위 해체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로서, 그렇게 현 정부에서 추진하게 해서 9월 25일 날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확정됐거나 뭐가 구체적으로 내용이나온 것이 아닌데 그것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가정을 해 볼 수는 있잖아요. 현재 확률이 반반이니까, 50 대 50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체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님들은 해체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대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면 50 대 50이니까 국정위가 금

융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금융위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금융위 해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를 지키려고 하는 소신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의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내용이 만약에 공개되고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양수 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융위원장후보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해체돼서 재경부로 합쳐지면 재경부장관으로 가실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요?

2021년에 코로나 유행 시기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기재부 1차관이던 지금 앞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7월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축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되게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5차 재난지원금은 후보자의 입장이 관철돼서 국민의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당시에 보편 지급에 반대했던 후보자의 입장이 관철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어떻게 부스팅할 거냐? 소비 보조가 하나 있고요 소득 보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소득 보조고 소비 보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고소득층까지 커버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합 패키지로서……

○이양수 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말씀이시고 하여튼 후보자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 그게 굉장히 그때는 중요했고 그 논리가 굉장히 먹혔습니다.

○이양수 위원 철학적으로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실 과거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주장했던 보편 지급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과거 후보자가 비판했던 보편 지급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4분기 연속, 2024년이지요, 24년 2분기·3분기·4분기, 금년 1분기까지 -0.2, +0.1, +0.1, -0.2…… 경제가 암만 어려워도 이렇게 4분기 정도 연속해서 0.1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 침체에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중에 우리 경제가 진짜로 도약하는 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원금도 추가 10만 원 같은 경우는 90%로,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90%로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와 같이 가는 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양수 위원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허영 위원님 1분.

○허영 위원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의 한 요소로 사모펀드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영 위원 아니요, 관련하여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추진 경과 등을 요청했는데 금융위는 당초 계획한 기한을 연장해서 8월 말까지 과제가 진행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8월 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해 왔고, 사모펀드제도 개선에 대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가 될 금융위의 연구용역 자료를 금융위 관계자는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료제출, 아까 이양수 위원이 한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후보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자꾸 금융위 해체를 얘기하시는는데 지금 기능 조정에 대해서 확정도 아니고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후보자님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금융위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거를 가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안 하고자 하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시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가설, 낭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회 수장이 되시면 금융정책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을 총괄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자본시장 변동성,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융당국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위랑 금감원 감독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IMS모빌리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건희 씨랑—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져 있지요—김예성 씨 관련한 내용인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용만 위원 간단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용만 위원 말씀 못 할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면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회사에 이례적 수준의 투자들이나 공교로워 보이는 회사들이 투자를 한 건인데요, 그중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김예성 씨가 횡령을 한 걸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금융위한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유일한 국내 기관인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용만 위원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예탁금 보관·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 온 기관인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이 IMS 투자 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위험 사모사채를 수차례 인수를 하고요 나아가서 23년에는 투자조합을 통해서 50억 원 이러한 최대 투자자로 참여까지 합니다. 이렇게 고위험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기관이 한마디로 공격적 투자를 한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내용을 일단 보고받은 부분은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거는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하고 특검……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특검 결과가 나오는 건 맞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특검 수사에 협조 필요한 거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일단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곳이 그렇게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이례적인 한증금 투자 외에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도 잇따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23년에 회계부정하고 배차 알고리즘 조작된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고의 판정을 받고 과징금, 검찰 고발, 해임 권고까지 논의가 됐다고 보도가 됐고요.

또 그 외에 HS효성, 한증금 뒤로 35억 원 후순위 투자까지 했던 곳입니다. 여기도 투자시점 전후로 계열사 신고 누락 때문에 경고받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증금에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서 공격적 투자를 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뇌물성 협찬인 거거든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경제부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 ODA 건처럼 특검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먼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 부분은 다 결국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만 위원 특검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부총리님도 특검 외에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그냥 기다리시겠다고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 주신 취지대로 특검은 특검이고 특검 외에, 특검이 수사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12시 30분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해체냐 아니냐, 10일짜리냐 보름짜리냐 이런 말씀 주셔서…… 저는 이게 곰탕하고 냉면 같이 하던 집이 곰탕 따로 냉면 따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건지 아니면 곰탕하고 냉면 같이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건지…… 기능 조정이고 간판 바꿔 달기, 만약 정부조직법이 변화해서 실제로 기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거기 사장 바뀌는 것 아니거든요. 집주인 바뀌는 것 아닌데 왜 갑자기 10일짜리, 15일짜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고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면)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수없이 지적이 됐고요. 작년에 직전 금융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처음으로 저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 세 분이 얘기를 해서 삼부토건 추가조작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만나고 그다음에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기재부 쪽 관료 만나서 MOU 체결하고 원희룡 장관 폴란드 가고 대통령 우크라이나 가고 하면서 삼부토건 주가 쭉쭉쭉 5배 올라간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바이오텍 주가도 삼부토건이랑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업의,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련돼서 얘기됐던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됐습니다, 이일준, 이웅근, 이종호. 밀항 이기훈 선생만 도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은 특검에서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뭐 해야 되느냐? 보세요. 웰바이오텍 2023년 5~7월 주가 변동 쭉 보면 투자주의, 투자주의, 투자경고 그다음에 투자주의 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투자주의·경고를 계속 발령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무기명 전환사채를 약 190억 발행을 합니다.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삼부보다 웰바가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당국이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다음 것 보시면 우리가 금융위원장 인 청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것 왜 조사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8월 달부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를 개시하고 이상거래 심리를 한 2개월 만에 종료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을 때부터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1년 2개월 뭐 했냐?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앞서 보면 웰바이오텍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주의 이런 경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거래 심리를 했냐, 안 했냐?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누군가 막아서 안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상거래 심리를 하려면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상거래 심리가 들어갑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게 맞습니까? 1년 2개월이면 주가조작 세력들이 돈 다 빼돌려 가지고 이미 증거인 멀 다 끝냈을 때인데 ‘이게 원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해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금융당국의 능력이 주의·경고는 할 수 있지만 이상거래 심리는 1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 한 게 그냥 우연히 시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적한 것과 정상적인 이상거래 심리 기간이 우연히 맞았다 그래요. 이런 우연을 허용하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감시시스템이라면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주가조작이 있은지 1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즉 웰바·삼부토건 주가조작 당시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서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실제로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위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하셔야 되고요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주시 단계에서부터 이상거래 심리 까지 가는 데 1년 2개월이나 걸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시장의 감시시스템이 작동돼야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장난치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믿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속 적발 그것을 1단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신속 적발의 취지와 시스템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금융위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금감원에서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 지금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관련해서 물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을 속여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6000억 규모의 전단채를 사기발행해 가지고 고발당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라는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서 또 6000억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이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기금이 먹튀 투기자본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된 채 증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재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금감원에서 한다 그러니까요.

○**김현정 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는 거고요.

제재 수위가 보면 가장 센 곳이 등록 취소 그다음에 영업 정지,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지금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사모펀드 네 군데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MBK입니다. 그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해지거든요.

기관 경고 이상의 경고도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거기서 어떤 수준을 결정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증선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경고 이상의 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결과가 저희들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정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 정도면 내용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것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조사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좀 다른 계통이기 때문에 조사……

○**김현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김건희뿐만 아니라 원희룡·추경호 전 장관 등 전 정부가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에 넘어간 이후에 거의 8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끊개고 있다가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건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장식 위원께서 확인해야 될, 개선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끊개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특사경 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46명 그리고 금융위에 9명의 특사경이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23년도에 24명이던 것을 24년도에 무려 2배로, 46명으로 증원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요. 금융위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으로 넘어왔는데 인지수사를 못 하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과에다가 이걸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조사과에서는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해 왔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없었으면 빨리 인지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넘겨서 강제수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근거가요 금융위의 훈령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수사권이 없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245조의10 3항에 보면 특사경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각 수사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는 하위규정으로 형소법, 금감원은 형소법 위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삼부토건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합동조사단까지 꾸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규칙, 훈령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고 금감원의 특사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더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금감원의 특사경으로 다시 넘겼어요. 처음부터 금감원 특사경에서 강제수사했으면 끝날 것을 빙빙 돌다가 1년이 돼 가지고 다시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의 특사경으로 조사 지휘를 통해서 넘겨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특검이 뜨면서 특검으로 다시 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묵힌 가장 큰 원인이 특사경 제도에 있더라도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 훈령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특사경은 사실 검찰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살펴서 잘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후보님,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첫째, 주식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7월 31일 날 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3.9% 폭락하고 8월 1일은 주식시장의 검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권거래세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0.15%에서 0.2%로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나 손실을 보나 무조건 부담을 해야 돼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주식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충실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주주들은 배당금을 원하지 기업이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를 즉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주 충실험무하고 배치될 가능성성이 있어요.

현대자동차·기아차 하청사가 5000개 정도 됩니다. 이 5000개 하청기업의 임단협에 현대자동차가 일일이 대응할 수 있나요? 기업의 역할을 잡고 목을 조르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코스피 5000이 됩니까?

그리고 금융계의 수장이라는 분이, 우리 후보님은 테슬라,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이 해외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를 했더라고요. 금융계 수장이 국장이 아니고 미장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데 국내 주식투자가 누가 코스피에 투자를 해요?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공직 생활 동안은 주식투자를 못 했고요. 나와서 시장

경험하면서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론은 다 옆에서 봤는데……

○**김상훈 위원** 말 잘하셨어요. 잠깐만, 그것도 그렇고 기재부차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본시장연구원, 공적 기관의 연구위원으로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면서 사기업 사외이사를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했더라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세 군데……

○**김상훈 위원** 잠시만 보세요. 엘에프, CJ대한통운, 삼프로TV 운용사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까지 합해서 받아 간 돈이 6억이나 됩니다, 6억.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닙니다, 그거는.

○**김상훈 위원** 이게 사적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상훈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엘에프에서 받아 간 돈이 1억 6000, CJ대한통운 1억 2000, 이브로드캐스팅 그건 한 5000만 원, 자본시장연구원 해서 1억 2100……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건 기간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제가 사외이사는……

○**김상훈 위원** 기간이 다 중복이 돼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외이사를 3개를 동시에……

○**김상훈 위원** 기간까지 말씀드릴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도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고요. 제가 공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고, 사외이사 보수도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내부 회사의 규제 수준에 따라 받은 거고 저랑 같이 한 분들……

○**김상훈 위원** 엘에프에서 받아 간 돈이 1억 6000인데 1년에 한 1억……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월 5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1년에 한 1억 상당 가져갔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렇지 않습니다. 월 5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게 대기업 사외이사보다 훨씬 많은 보수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월 500만 원 받았고 다른 사외이사분들이랑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거는 내가 좀 검증을 해야 되겠어요.

○**강민국 위원** 본인이 제출한 자료 아니야?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질의 끝나면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 사적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짚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충질의 때 이야기할게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께서 미국 주식 투자 이 부분 말씀 지적 주신 거 잘 귀담아듣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그런 거 봤고요.

제가 총 7000만 원 주식투자했고요 1100만 원 미국 주식 투자했고요. 나머지는……

○이양수 위원 아니, ‘송구합니다’가 나와야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나머지는 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ETF로 투자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송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질의 중에 답변이 들어가면 혼선이 오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후보자님, 제가 내용을 좀 바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이 나왔는데 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정도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시면서 6억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서는 ‘정당하게 업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6억 2000이 약 3년 2개월 정도면 1년에 2억 정도 베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금액, 액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제가 새겨야 될 부분 같고요.

다만 저는 공직에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까 했는데 3년 동안 취업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폰타임으로 어디에 매여서 어떤 걸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공직에 있을 때 들었던 말이 ‘현장을 알라. 기업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가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려는 과정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진짜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요.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에 있을 때 다른 데 고문을 했는데 1년 동안 S-OIL 사외이사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또 하나는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억 5000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도 4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이것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후보자는 물욕이 없는 분이고 상속할 자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저는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돈 버는 행위들 하니까 국민들 감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금융계 수장 되시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기재부라든지 금융위라든지 여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도록 제가 임명된다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임들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박진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는 김앤장에서 44개월 있으면서 9억 6200만 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좀 적으시기는 한데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시면서, 수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할 때 그때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같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때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할 것인지 논쟁이 컸고 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여기 보시면 8개의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8개가 달렸고 그중에서 두 번째 것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하고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하고…… 이러면서 기본법, 업권법 전체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법 시행은 24년 7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그 고민을 해 가지고 시대적 흐름들이 있어서 빨리 이 기본법을 해야 된다 말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소버린 AI 아시지요? AI 미국 것 쓸 수도 있고 중국 것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것 쓰자는 것 아닙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쓸 수도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국내 수요가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달러 수요의 대체 관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소버린 AI는 한 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통화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후보자님, 세계 금융질서에 이미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기술의 확산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어요. 미국과 유럽, 법제화하고 감독 기능을 앞세워서 시장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규제샌드박스라는 인식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금처럼 규제샌드박스만으로 혁신을 키워 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

미국 거래소 로빈후드라고 혹시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거기서, 유럽연합에서 발행했는데 200여 종의 미국 주식하고 ETF를 토론크화한 STO 상품 출시한 것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STO 도입 이후에 시장 성장을 위한 액션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제시하고 혁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제 기반 아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것 걸고 있습니다. 1단계 법이 투자자 보호하고 예치금을 분리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2단계 입법에서는 STO 그다음에 디파이, NFT 같은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테이블코인까지 법제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입법의 방향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도 되고 가지 말아도 되고 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길로 이미 접어든 겁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 사례들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1월 달에 첫 시세조종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4월 달에…… 특정 시각에 시작하는 ‘정각 경주마’ 이런 단어 들어 보셨어요? ‘가두리 펌핑’ 새로운 신조어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5월에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탐지하고 보고만 하고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태를 좀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피해자 구제하는 게 지금 전무합니다. 과징금은 때려요. 그런데 국고로 들어가요. 투자자는 빚만 남고. 이제 거래소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금융위가 직접 감시 수단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것도 법제화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인공지능 기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 시급히 좀 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을 피해자 환급 펀드로 전환해서 이들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 이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페어펀드라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부분,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이강일 위원**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유럽의 미카, 미국 지니어스볍 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결제 유통을 아우르는 일종의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이미 부상했고 시장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올해만 사용량이 벌써 60%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이 오면 누가 유통망의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선도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주도권 세력에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메인넷 수준의 기반 인프라 논의는 미진한 상태예요. 제가 사전 미팅에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외국 메인넷 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K-스테이블코인 설계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금융결제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 독자 메인넷 도입이 전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속칭 코리아 블록체인 ‘코블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결제 인프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총리에게도 제안했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더리움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이더리움을 거래기반으로 해서 수수료만 얼마가 발생된 줄 아세요? 순수입만 3.6조 원, 이것은 그 안의 거래관계의 수수료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국가가 설계하면 여러 가지 국부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이나 부가가치나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말씀 잘 새겨서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스테이블코인도 밑에 그걸 이용하는 망들을 이더리움도 하고 트론도 하고 이러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런 걸 한국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관계부처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얘기입니다. ‘투기성이 짙은 뜰뜰한 한 채나 캡투자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 말씀 취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6월 27일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한도고 실거주 의무까지 같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캡투자가 불가능해졌지요. 그래서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부동산,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동산 구입 경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날 개포주공3단지를 약 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등기부등본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을 1억 78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7200만 원이 비는데 당시 전세를 끼고 구입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전의 집을 팔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요.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전세 끼고 구입한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이게 캡투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2013년 6월 24일 날 매도하셨습니다. 매도하시고 그다음 날인 2013년 6

월 25일 날 주공1단지를 구입하셨는데요.

2005년도 개포주공3단지를 구입했을 당시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말이지요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가격 폭등되니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투기 대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후보자는 정반대로 이렇게 캡투자를 했던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날 그러니까 3단지 아파트를 팔고 그다음 날 1단지를 구입하셨는데 주공1단지 8억 5000에 구입했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3억 5000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캡이 5억이 남지요? 여기도 전세를 끼고 사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이것 전형적인 캡투자입니다.

당시 1단지 구입할 때 직책이 뭐냐 봤더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둘 다 말이지요, 3단지는 11평이고 1단지는 17평입니다. 제가 개포동에 살아서 잘 알아요, 이 단지를. 4인 가족이 근무하기에는 정말 좁은 데입니다. 이것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안 하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희가 해외 나가기 전에……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해외 나가기 전에 구입했는데 들어와서 거주하신 적이 단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확인했는데 자꾸 그려세요. 그러니까 실거주 조건으로 했으면 나갔다 들어왔을 때 거주를 하셨어야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희 집사람이 여기……

○柳榮夏 위원 잠깐만. 저기 보세요, 한번. 거주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실거주 조건이 아니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실거주 조건으로 구입 안 하신 것은 맞다고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하면서 매매차익이 얼마나 됐나 제가 확인했지요. 그랬더니 2005년도 3단지를 구입했을 때는요 한 1억 9500 시세차익이 났고 2013년 주공1단지는 현재 재건축돼서 들어가 사시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이게 현재 시세가 46억 정도 됩니다, 이 집이.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약 37억 정도 캡투자로 이익을 보신 거지요. 국민 눈높이로는 정말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거예요. 본인은 캡투자해 가지고 시세차익을 엄청나게 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후발 주자들은 못 사는 그런 정책에 찬성했어요. 이것을 보고 이율배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도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태도가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비칠지는 정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발언 태도를 보니까 격하시던데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억원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하고 21대 국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경험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후보자 모두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미래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번에 법 통과시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성장펀드를 가지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현실이 좀 어렵다는 것은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지금 보면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장을 북돋는 금융 혁신’,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이런 게 국정과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의 부동산 신용액 규모가 작년 말로 한 1932.5조다,—한국은행 통계입니다—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표 좌측을 보면 부동산 신용 비중은 50% 언저리에서 차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 금액, 절대 금액은 계속 막대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오른쪽을 보면 주요국 GDP 대비 부동산 신용 비중을 보면 가계는 우리도 좀 줄여갑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기업 부분이 지금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해서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고요.

그 결과로 보면 GDP 대비 부동산업 및 건설업 부채 비중이 국제 비교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EU나 일본, 호주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연도별로 증가세도 상당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다음 쪽을 보면 은행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말 대비 506조 정도가 증가해서 43.4%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PF 때문에 요새 조금 어려워져서 그렇고, 상호금융·여전사 모두 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의 신용 편중 현상이 나오는 구조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요. 일단 부동산시장 자체가 여기서 너무 수익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수요가 그쪽에서 너무 높고요. 또 금융회사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안정된 장사니까 그걸 공급을 하고……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 제도적으로 과연 이거를…… 금융의 건전성만 저희들이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살짝 유도한 것들이 있지 않나……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하고 거의 일치하는데요.

2020년 6월에 우리가 바젤 III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바젤 III에 보면 금융회사 BIS 비율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신용리스크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코로나 때 완화적 금융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저금리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자산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더 들어가 위험가중치를 보면 보통, 최용훈 국장의 얘기인데 기업대출이 47.5%라면 부동산담보대출이 28% 정도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가중치 측면에서 이쪽 주거용 부동산에 은행이 마구 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추가질의는 제가 다음 7분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김재섭 위원입니다.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원래 저도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제가 점심 먹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그것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드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입학을 어떤 전형으로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수시전형입니다.

○김재섭 위원 수시전형으로 가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정원 외 전형이나 이런 것 전혀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일반 수시전형으로 가신 거군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거는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이나 이런 거랑은 무관한 전형인 거 맞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부동산 여쭤보려고 했던 것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실거주로 굉장히 아주 집착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이전에 살았던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사신 적은 없었던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김재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5년부터 구입을 하셔 가지고 시세차익을 한 2억 원 정도 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 도곡동 개포럭 키아파트 여기를 보니까 32평, 24평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유하고 계셨던, 소유했던 아파트는 10평 정도가 되니까 소유 형태와 거주 형태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주를 하거나 이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집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해외 나가기 전에 구입할 때는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들어오면서 세입자랑 전세 일정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김재섭 위원 그런데 그 10평짜리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사셨는데 사실 2010년, 2013년에 사셨던 아파트의 평수랑은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신뢰가 없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다음 PPT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아파트 단지인데 이것은 17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인에서 사셨던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평수가 더 커졌어요. 58평, 51평 이렇게 각각 되던데 이 역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셨던 주공1단지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요, 거기는 살려고 했는데요. 2016년 7월에 들어올 때, 저희 집사람이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교사인데 화성 지역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오면 외곽에, 거기서 제가……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거주하셨던 거랑 실거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아파트랑은 평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평수였을 텐데 그것을 지금 실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를 기만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공교롭게 2013년에 구윤철 장관도 그 당시에 똑같은 아파트를 매입하셨더

라고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구윤철 장관도 거기 계시고 후보자님도 거기 계시고 하면 사실 경제장관회의 다 그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셔도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기재부 출신들이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몇 분이 구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석연치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2013년에 그래서 그런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기사로도 주공1단지 투자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직자로서 충분히 아셨을 텐데 거기에 구윤철 장관도 그렇고 후보자님도 그렇고 들어가서, 누가 봐도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도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SR 확대 추가조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6·27 기준으로 하시면 당시에 후보자님이 규제에 걸리셔서 대출 못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당시에는 그 규제……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대출 못 받고 그 아파트 못 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환영을 하시고 지금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은 추가로 조치하시겠다고……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후보자님 보면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집 사겠다는 사람들은 못 하고 후보자님은 충분히 다 시세차익 누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울하다는 마음도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돈 벌려면 공직으로 가지 말고 기업으로 가시라는 말씀 하셨는데 후보자님 살아오신 인생을 죽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투자도 잘하셨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다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선언한 시대에서 금융 수장이 되실 분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투기로 보이는데—한 40억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 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국장 믿고, 금융 수장 믿고 국내 중시에 투자하겠습니까? 대부동산 가서 투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아 놓으니까……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만과 금융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가슴 속에 잘 새기고 계속해서 아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후보자님, 저는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신청을 한 후에 4개월, 거의 5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금융당국에서 가타부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 8월 27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금융당국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승원 위원** 이 추가 조사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지……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지금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MBK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감리, 추가 조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PPT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저는 MBK, 즉 홈플러스가 인수될 당시부터 MBK가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자료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거기 자본을 댄 은행한테 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이게 보면 MBK 측이 금융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를 부동산만 6.3조 원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기업가치를 8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7조 20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갚겠다 이런 표현을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매각되거나 아니면 폐점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원금 회수라든가 혹은 투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밝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승원 위원** 이런 행태는 사모펀드의 다른 형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버스 차고지…… 차고지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시외에 있었는데 경기도가 발전하면서 그게 시내 발달된 지역에, 발전된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서 이것 팔면 꽤 큰돈이 됩니다. 사모펀드가 경기도 버스회사 열몇 개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차고지를 팔고,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 폐지하고 이런 걸 합니다.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서 이런 투자 행태라든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 아니면 공공적인 영역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당국의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으로는 MBK가 개인투자자들, 전단채라고 하지요. 이것들을 이제 6000억……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회생 신청하기 전에 6000억을 발행하면서 개인한테만 2000억을 판매하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2025년 3월 4일 개인회생 신청하기 한 달 전, 2월 달에만 전단채를 1517억 그다음에 단기사채 160억, 기업어음 130억, 2월 달 한 달에만 1807억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4일, 개인회생 신청을 새벽에 하고 당일 10시에 심문 절차하고 11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든요.

저는 이것은 법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생 개시 결정을 긴급하게 합니까? 그리고 관리인을 MBK 쪽, 홈플러스 쪽 부회장 김광일 씨를 관리인으로 둡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그 회생에 책임이 있는 그런 기업체의 부회장을 시킵니까? 이 점도 살펴 주셔야 되고.

지금 이런 전단채를 발행하다가 형사처벌받은 LIG 사태라든가 또 동양증권이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승원 위원 다 검찰에서 수사 엄정하게 해서 LIG는 아마 징역 4년 그다음에 동양증권은 현 회장께서 징역 7년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엄정하게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조사도 하고 또 검찰에 넘겨야 될 그런 결과도 넘겨서 MBK 김병주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이 PF 제도에 대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 이런 기준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도 금감원이라든지 조사할 건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게 MBK 홈플러스 관계자 10만 명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조사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헌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잠깐 자료 요구, 1분만 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아까 수시입학이라고 하셔 가지고 어떤 수시입학 전형이었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시입학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드님께서는 해외에서 다 졸업을 해 가지고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수시입학이 됐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전화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나중에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후보자님,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의 매수자금 중 차입금이나 투자금이 아닌 MBK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10년 동안 수수료와 성과보수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히 감독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심지어 필요한 내용들은 사모펀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개는커녕 관리감독이 전무한 것입니다. 완전히 깜깜이 금융, 깜깜이 금융감독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럽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2년 동안은 이렇게 먹튀 자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당금이나 자산 유출 관련해서는 의결권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금융위에서는 사모펀드 관리 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리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합리적 규제가 필수 아닙니까? 유럽 정도의 법과 제도는 당연히 마련되어야지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모펀드 먹튀 자본, 약탈 자본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이것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 점포 폐쇄 문제와 그 대안으로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은행대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은행 점포 폐쇄 현상에 은행들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은행 점포를 온라인금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은행 창구를 찾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곳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점포들을 없애 왔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47개 군 지역에서 아예 다 없앴고요. 서울에서도 고령층 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48%가 줄었고 직장인들 그리고 부자가 넘치는 강남구는 23%를 줄여 가지고 179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강북구와 강남구의 점포 수 차이는 예전 9.4배에서 13.7로 4.3배 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서민층이나 고령층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의 이러한 접근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PB실을 찾는 부자들이 있는 그런 상담 중심으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익 추구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는데요. 금융권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개정안을 마련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연합회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율규제를 악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은행 점포가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금융위는 은행 점포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금융인프라인지 알 텐데도 왜 수수방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러한 무용지물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인 법적 규제로 제도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그 필요성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해 나가야 될까, 지금처럼 자율적인 형태, 자율규제 형태로 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강제……

○한창민 위원 자율규제 형태로는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대리업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고령층·농어민들의 분노가 커지니까 금융위에서 대책으로 마련했는데 사실 이것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이고요.

자료 제시한 걸 보시지요.

은행대리업은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 특히 고객과 직접 상담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캐주얼로 하는 업무만 은행대리업에 맡기고요 은행은 심사하고 승인만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그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1분만 더 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냥 하세요, 가까우니까.

○한창민 위원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수익이 낮은 점포는 아예 폐쇄하고 은행대리업으로 전환하면 되겠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은행대리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요. 현재 은행들도 금융소비자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 수수료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대리업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대리업자들 때문에……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건지 이런 대책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업자와 은행 중 어디에 얼마큼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금융정보 이걸 어떻게 잘 보호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이런 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출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제기했던 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 추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살펴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제기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금융사고가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제도는 빠르게 보완하는 게 우리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방금 한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역구의 점포 수. 그런데 아마 은행은 낮에 주간활동인구를 더 많이 감안하겠지요, 주민등록인구보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점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위원장님이 되시면…… 제가 여기 모두발언, 정책방향 이런 것 지금 읽어 보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두고 있는 거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금융위의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저성장, 양극화,

굉장히 구조적으로 위기에 있고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금융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너무 안전한 위주로 가는 이 구조가 과연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랑 맞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의 역할을 한번 생산적인 부분으로, 금융도 역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게 다시 금융한테 도움이 되는, 동반성장을 갖고 오는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상혁 위원** 그러면 목표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의 근거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어서 그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셨을 텐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거는……

○**박상혁 위원**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목표가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계승을 하든 개선을 하든 이것의 방향 수정을 하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건 많이 아쉽고.

지금 경제성장률 올해 얼마 전망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마 0.9인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2024년이 우리나라 65년간,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률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외부적 충격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2023년, 24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기본적으로 거시 정책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제가 기력이 약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코인과 같은 데까지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는 공기업 또 금융 공기업 또 산하기관 또 여러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에도 내고 22대 국회에도 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함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대통령님과 임기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명 정도가 이런 분들이 지금 재직 중에 있어서 과연 새로운 변화와 방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해 나갈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금융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분들과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면직 그리고 이분들의 사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니까 제보도 좀 들어왔는데, 다음 것도 보실까요?

또 유관기관에도, 증권 유관기관에도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시고 특히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도 이렇게 알박기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용출 씨 같은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나이아가라폭포 외유성 출장에도 포함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금융위가 감사 중이지요, 이 외유성 출장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상혁 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감사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거는……

○박상혁 위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명확하게 진행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국내 금융회사 전 업권에 걸쳐서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금융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그중 절반은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중순까지 5대 시중 은행에서 공시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만 총 16건이었고요, 사고 금액은 약 952억 원에 달합니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뭘가 시스템 내의 내부통제 유인체계 이런 걸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말씀하셨듯이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저는 책무구조도가 실제 금융 사고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사고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큰데요. 특히 새마을금고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또 단일 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배구조법상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각 중앙회 차원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내부통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별 단위조합 범위까지 내부통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고도화되었어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융사고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이런 쪽은 기존의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소관 부처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감독의 수준이라든지 커버리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결국 사후 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검사시스템 개편보다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여기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신용사업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맡고 있고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금융기관 내에서도 금융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러니까 감독 측면만 보면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관계 부처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주신 사항을 관계 부처랑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어쨌든 취임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어쨌든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복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통합감독체계 구축이라든지 책무구조도의 고도화, 요즘은 빅데이터와 AI를 사용하는 여러 기법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내일…… 어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롯데카드 경우에는 고객 수가 967만 명에 이르고 정보유출 규모가 현재 1~2GB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커의 자료유출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한 여러 금융사고도 있었지만 이 해킹사고는 특히 그 규모나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더 번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 금융위에서 확실하게 한번 쟁여 보시고 피해가 있는지 또 향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지금 금융감독원이랑 금융보안원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잘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이억원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후보자가 모두발언한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그렇게 농록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형국인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말 위기대응 역량과 균형감각을 지닌 지도자가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억원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역량과 철학을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직자로서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시장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이끌어 가실 분인지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에도 흔들림 없이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시는 분인지 여부입니다. 솔직하고 가감 없는 답변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직 그만두신 게 2022년 5월이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를 퇴직하시고 3년 동안 아홉 기관에 재취업을 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홉 기관……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에 9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동료 위원 질의 과정에서 민간기업 세 군데 사외이사를 하셨는데 겹치기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답변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러니까 3개를 동시에 겹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2개는 겹쳤다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2개는 그 시기가 겹쳤지요.

○**李憲昇 위원** 우리가 ‘겹치기’라고 하면 3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겹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정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연봉이 제법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전북 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 초빙연구위원,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수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나 수당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연봉에 걸맞는 연구나 수업의 질을 담보했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되는데요.

여기 서울대학교 올해 1학기 강의계획서를 보더라도 별도 교재를 준비한 것 없이 평소에 뉴스를 보면서 본인이 당국자라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연습해 보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본인의 강의를 소개하셨고 또 대부분의 강의를 본인보다는 외부 강사 초빙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가 한 3년 5개월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대학이나 기관이나 대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이렇게 직을 걸어 놓을 수 있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엘에프라든지 CJ대한통운 이런 데 사외이사나 감사 이런 것 하기 참 힘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후보자께서 퇴직하기 직전에 기재부차관이라든지 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학교나 연구원에서 직을 오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제가 한 30년 동안 해 왔던 경험이나 지식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공유하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에서 제가 38년 전에 서울대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채롭게 보여 주기 위해서…… 굉장히 호평받았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말 후보자께서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의 노하우를 실물경제에 또 학계에 전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좋으신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후보자 입장이라면 다른 민간기업체라든지 사외이사를 거치는 것보다는 연구직이나 교수직에 조금 더 충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후보자께서는 취업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통과는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통과는 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기재부차관이라든지 이런 큰 경력을 하셨기 때문에 자칫 후배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본인이 직을 두고 있던 기업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후보자 입장이라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취업 심사를 받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 사외이사 3개를 겹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규정상 못 하게 돼 있잖아요, 3개는? 2개밖에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률 규정상 사외이사를 한 번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동시에는 2개밖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개 안 했다고 그러는 게 당당한 답변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규정에, 법률상 3개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후보자님,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가 꽤 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인영 위원 올해 한국은행이 1분기 가계부채 잔액 발표한 게 1928조 7000억이고 GDP 대비 89.4%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금융협회가 24년 세계부채보고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4년 4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91.7%,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통계는 90.7%로 44개국 중에서 5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3.8% 이내로 엄격히 관리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속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목표라는 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양적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선 양적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부 학자, 미안이나 수피가 IMF에서 공동연구한 것 이런 것에 의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소비를 위축한다’ 그리고 ‘85~90%를 넘으면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임계점이다’ 이런 결과 보고에 의하면,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좀 한가해 보이지요. 그냥 3.75, 3.7%라는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80~90%라는 일정한 임계점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상시적인, 좀 안 된 표현입니다만 폭탄을 계속 한국 경제가 안고 가는 거니까 좀 한가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양적 관리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고위험군에게는 위험성이 계속 높아져 있는데 이게 뇌관으로 작동해 가지고 폭발할 경우에 여타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 보인단 말입니다. 이 경상수지율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 있는 사람에게는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역으로 증가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하고 다르게 새로운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대책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DSR 이렇게 총량 관리해서 억제하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상태를 관리했다가는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 문제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지적했던 임계점에서 어떤 상시적인 위험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떤 대책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양적·질적을 다 같이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총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 하향을 만들고……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총량을 서서히 하향화시키면 2020년·21년·22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라서 97~98% 이렇게 갔던 게 23년에 93%, 24년에 89.6, 올해 89.4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는 부합할지 모르는데 일부 학자가 지적하는 임계점 수치, 80~90% 이 수치는 꽤 오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가는 과정에서 연착륙시키려다 그 시간에 터질지도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런 것이 가지는 한계점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공급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게 이 삼박자를 같이 하고요. 말씀하신 고위험군 이런 부분은 진짜로 특별히 더 봐야 돼서 서민금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위원님, 1분.

○**강민국 위원**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후보자 답변을 보면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까 사외이사 부분도 그렇고 또 소득증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뗐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뗀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2024년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3500만 원, 이브로드캐스팅에서 600만 원, 고려대학교에서 2600만 원, 엘에프에서 6500만 원, CJ 대한통운에서 6600만 원, 202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전행이 없다라는 답변을 지금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위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증에 따른 고발조치를 해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앉아 있자니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

○**위원장 윤한홍** 간사님들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출신 허영입니다.

후보자님, 퇴직연금이 전적으로 노동부 소관 사항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주무 부처는 노동부인데요 이게 자본시장이랑 국민 자산 증식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다 같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금융위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2024년 말 431.7조 원을 돌파했지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은 1213조 원, 개인연금은 38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연금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후보자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허영 위원 심각하지요.

보시면 무려 100명 중 40명이 가난한 노인들이십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3.8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이 약 14명 정도 됩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으니까 그중의 약 40%인 400만 명이 가난한 노인이 신 겁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은 복잡한 원인이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 문제도 있고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도 있고 또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노령층으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가처분소득,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소득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보다 수익률을 높여 가지고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하고 그 퇴직연금이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적 방향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난 평균 수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2%대……

○허영 위원 2.4%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7.1%예요. 사학연금 수익률이 7.8%입니다. 이게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수익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0%예요, 수익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낮게……

○**허영 위원**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퇴직연금 413조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356.5조 원에 달해서 83%가 그냥 원리금 보장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17% 정도만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률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 ‘퇴직연금 목돈 타 갈수록 가난해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총수령액 중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57%를 넘어서고 있어요. 일시금 수령 방식의 비중을 이미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좌당 연금 수령액이 평균 1.5억 원인데 반해서 일시금 수령 액이 1654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면 탈수록 노인들은 적자고 손해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래서 통합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전문가 자산운용 시스템들을 여기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전문 운용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수익률을 높여 가지고 좀 더 두텁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노동부에만 맡겨 놓지 않고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져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소관 부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살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금융위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해 못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국격에 맞는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낮아요.

최근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63위 중에 몇 위인지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정확히는 제가……

○**박찬대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정확히는……

○**박찬대 위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만에 정무위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그때 2017년에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 안보상의 문제, 소유 또 지배구조의 문제 등등 많이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의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집중적인 논의 끝에 결국은 소유와 지배구조가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의 독립성이 바로 회계 투명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서 2017년 12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 그것이 거의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6년간은 자유수임을 하고 그리고 3년간은 금감원 등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63개국 중에서 63위 하던 회계 투명성이 이것 때문에 한동안 30위권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다시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떨어졌어요.

혹시 왜 그런지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글쎄요……

○박찬대 위원 분명히 우리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투명성은 제가……

○박찬대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라는 것과 함께 경영자의 회계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 2017년에 신외감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위권까지 올라갔던 회계 투명성이 22년도 전 정부 때 자꾸 완화되고 있는, 사실은 퇴보하는 행보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40위권이 다시 60위권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법 개정 등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회계 투명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도 사외이사하면서 또 감사위원회 활동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회계제도 그다음에 회계 하는 거 그다음에 지정제도 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계속 보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회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그래야 결국은 자본시장도 발전하고 그런다는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찬대 위원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

장 구체적인 거는 투자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얼마나 투명한지가 바로 그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럼요.

○박찬대 위원 비상장기업도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후보자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저쪽 답변대로 좀 오실래요? 답변대에 좀 서 주십시오. 보이지가 않아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 금융위원회 해체입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는 그 방안은 이미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 건지……

○강민국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든 뭐든 간에 알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언론 통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금융위원장후보로 나오신 분이 당연히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후보님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안 자체도 확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 마지막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이 현실인데 그런 애매한 답변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회 347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또 지금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2197명 직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고. 또 금융업권은 어떻습니까? 금융업권에 혼란스러움을 발생시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가정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더 혼란이 가중될까 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금융위원회 간판

내리려고 조직을 분리해서…… 기재부에서 투입된 철거팀 반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중에서. 이런 것 간단한 질문이고 간단한 답변인데 그것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금융위원장후보로서 답변이 전혀 안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겁니다.

○**강민국 위원** 자꾸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모 언론사에 기고된 어떤 경제학 교수의 기고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본의 욕망이 향하는 곳에는 돈 벌 기회의 꽃이 피고 이 꽃으로 기재부, 금융위, 검찰 등 슈퍼 공권력의 엘리트 벌떼들을 유혹한다. 공권력을 팔아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빼아 먹으려는 유혹에 엘리트와 조직이 길들여지고 이렇게 탐욕의 먹이사슬, 자본과 엘리트 카르텔의 온상이 만들어진다’, 이 교수님의 기고문을 보면 거론된 부처 중에 지금, 후보님이 30년간 몸담은 곳이 기재부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수장하려는 곳이 금융위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이 경제학자 글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돼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어떤 위험성 그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 글에 공감하는 겁니까? 공감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탐욕의 먹이사슬, 자본과 엘리트 카르텔의 온상이 된다는 걸 그냥 인정하시는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닙니다. 카르텔 이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검찰, 사법부, 기재부, 금융위,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그런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신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이 글의 저자가, 바로 3일 뒤에 있을 공정거래위원장후보 주병기 교수가 기고한 글이에요. 정말 국내 기업들 공정거래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장후보로서 참 이것도 답답하다라는…… 두 분의 생각을, 사고를 한번 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앞서 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사청문회 앞두고 금융회사인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 일어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지금 1만 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혹시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금융권의 해킹 사고가 얼마나 줄 아세요? 이것은 술하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아시

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답변 잘 모르시면 뒤에서 적어 드리고 하세요. 뒤에 앉아서 뭐 해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출범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그런데 어제까지 그 대체거래소에서 79종목 거래정지가 됐어요. 이거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한도 규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15%.....

○강준현 위원 거래량 제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투자자 편의성 그다음에 복수체제를 가지고 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아마도 제도개선 관련해서 금융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안이 한국거래소 시간 연장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해외 사례도 보면 이런 규제가 없어요. 일본도 있기는 한데 거래정지까지는 안 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다른 나라는 여려 개가 있고 우리는 원래 거래소가 있던 것을 넥스트레이드를 허용하면서, 2013년도에 그게 들어올 때 결국은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쪽 거래소의 컨센(concern)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요.

○강준현 위원 어찌 됐든 올해 출범했으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미스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그래서 출범 이후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 사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야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코인 발행 민간 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발행을 하면 예금 유출과 금융 불안을 우려합니다. 반대로 서클은 최근 국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자님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은행에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나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지금은 확답 못 하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안을 준비 중인데 제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요.

○**강준현 위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은행이 아닌 곳까지 발행을 허용한다고 하면 발행 총량 제한,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체계 같은 안전장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많이 공부가 돼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이것 자칫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된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되면 통화 주권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빨리 도입을 해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우려하고 계신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말씀하신 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위가 직접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같은 그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준비도 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하여간에 충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코스피 5000 가겠다, 자본시장 벤처업 정책인데 그것 하면서 기업들 범인세를 올렸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올렸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사실 그게 코스피 5000과 서로 잘 조화가 안 되는 정책인데,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보유금액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된 겁니까, 안 한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재부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것은 금융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강한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핑계 대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이다, 10억이다 결론 난 건 아니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게 발표는 그렇게 났고요.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이 난 겁니까? 안 하겠다고 결론이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여기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윤한홍** 아니지, 담당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면 코스피 5000을 누가 책임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명이 되고 나면 기재부장관이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는 게 철회된 것도 아니고 계속 주식시장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회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는 심사숙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철회된 게 아니다 이 말이네요, 심사숙고 중이라면. 그렇지요? 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가 아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50억에서 10억 낮추는 거는 언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연말이지요, 연말.

○위원장 윤한홍 연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연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9월이지요. 연말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앞서서 가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즉시 의사표명을 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이거를 시간을 갖고 시장 눈치를 보면서 한다, 안 한다도 아니면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하나의 배임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려 줘야 됩니다. 하게 되면 한다, 10억으로 낮추면 낮춘다 안 낮추면 안 낮춘다,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기재부장관이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거기에 저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대주주 기준을 왜 금액으로 하지요? 주식 보유 비율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비율 앤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비율만 가지고 가면 되지 왜 금액을 하지요?

보세요. 10억이라면 주식시장에 10만 원짜리 주식 같으면 1만 주만 있으면 10억이에요. 그게 대주주입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 같으면 주식 수량이 많겠지요, 10억이면. 그러나 지금 제가 주식시장 보면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런 주식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몇 주 안 가져도 대주주라고 하는데 대주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이억원 후보자가 금융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주로 경제정책 파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주식 코스피 5000 간다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뭐가 5000을 가게끔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고민하고 있고요, 금융도 계속 같이 봤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취소를 안 하고, 철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 취임이 되면 이 문제가 빨리 결론 날 수 있도록 서둘러라. 그거를 기재부장관 뜻이라고 미루면 금융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금융위원장이 앞장서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지금 할 내용이 많지만 나중에 보충 할 때 하고 주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바로 들어가야지요? 잠깐 쉬고 하실래요? 왜냐하면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마쳤고요. 증인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나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식 주식회사 엘에프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규식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오규식**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일

증인 오규식

증인 김세완

○**위원장 윤한홍** 앉으십시오.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질의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신 강민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리로 좀, 안 보여 가지고……

○**위원장 윤한홍** 누구 먼저 하실까요?

○**강민국 위원** 김세완 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김세완 증인께서 저쪽 마이크대로 좀 나가서……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022년 6월경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격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후보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직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2년 8월 1일 날짜로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같은 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로도 임용됩니다.

김세완 증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후보자의 겸직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점에?

○증인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연구원에 오기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연구원에 임용되고 난 이후에는 겸직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 경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연구원에 전혀 겸직 허가받은 것도 없지요?

○증인 김세완 겸직 허가를 받은…… 겸직 허가는……

○강민국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세완 겸직 허가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강민국 위원 동시에 두 군데 하고 하는데 겸직 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세완 그 부분이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이전 연구원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항암 투병……

○강민국 위원 아니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오는데 그걸 확인 안 해 봤어요?

○증인 김세완 지금 이전 원장님께서 항암 투병 중이시라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도 실무 직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세완 예.

○강민국 위원 국정감사 때 한 번 더 나오실래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한 질의인데 그걸…… 지금 시간이 다 가 버렸네. 반이 다 가 버렸네.

○증인 김세완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증인, 역대 초빙연구위원 중 임기 종료 한 달 만에, 이억원 후보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옮겨 간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후보자 말고는 전례가 없지요?

○증인 김세완 저희 연구원 임기를 마치고 금융연구원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강민국 위원 한 달 만에 그렇게 간 사례가 없잖아요.

○증인 김세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금융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도가 사실상 기재부 전관들에게 자리 하나 주기 위한 통로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은 이런 낙하산식 전관예우를 통한 초빙 연구위원 제도 운영 행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세완 저희 연구원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인 금융……

○강민국 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운영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증인 김세완 그분들의 정책 경험과 지식이 연구에 많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기재부 출신들 전관 자리 하나 주는 것 동의한다? 우리 이삼십 대들은 직장도 못 알아봐서, 지금 구하지도 못해서 다 힘들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용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빙연구위원 채용 절차나 인적 풀을 새

롭게 정비할 의향도 전혀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증인 김세완** 그 부분은 저희 사원기관과 항상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유지한 전문가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증인 앉으세요.

엘에프 부회장님 증인으로 오셨는데,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엘에프 사외이사, 이것이 옛날 LG패션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오규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외이사 임기가 3년인데 많은 고관대작들이 관심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2015년 이후에 거쳐 갔거나 현재 있는 총 6명의 사외이사 중에 4명이 부처 차관 출신이에요. 그것도 부장검사 출신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증인 오규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런 부처 고위공무원들 데려와서 한 번 더 임기가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지요?

최대 6년간 임기 보장을 해 주고 사외이사로 위촉하는 이유는 뭐니까?

○**증인 오규식** 현실적으로 임기 보장은 아니고요.

○**강민국 위원** 아니, 임기 보장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엘에프가 종합 패션회사지요?

○**증인 오규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패션의 'F' 자.....

○**증인 오규식** 사외이사.....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기재부, 그것도 경제 부분, 국제경제 부분에 있었던 이억원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위촉한 이유는 뭐예요?

○**증인 오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외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통상 전문가 그다음에 회사 업종 특성상 마케팅이나 경영학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패션회사는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상 부분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엘에프가 제출한 2023년 3월~2025년 8월 이사회 개최 현황자료 보니까 부회장 증인하고 사외이사인 이억원 후보하고 2023년 8월 29일 트러스톤자산운용 요청사항 관련 보고 이사회 한 적 있지요?

○**증인 오규식** 예,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당시 이억원 후보의 입장은 뭐예요?

○**증인 오규식** 지금 트러스톤은 행동주의.....

○**강민국 위원** 행동주의펀드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오규식**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5% 이상의 2대 주주로.....

○**강민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설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증인 오규식** 그래서 경영진과 이사회에 요청한 것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 오규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억원 이사께서……

○**강민국 위원** 증인 좀 앉으시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증인 오규식** 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1분,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 가 버렸잖아……

후보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아까 후보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2024년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일곱 군데 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특임교수로, 사외이사로 약 2억 원의 소득을 더해서 강연 자문 등으로 기타사업소득도 6859만 원이나 벌어들였는데 아까부터 이상한 답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국회 와서 솔직담백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를 무슨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님 취지를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보통 장관후보자의 능력을 물어보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안 물어봐요.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증인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남근 위원** 김세완 증인에게 좀 시간을……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세완 증인 저쪽 마이크대로 좀 서세요.

○**증인 김세완** 예.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위원입니다.

후보자하고 증인에 번갈아 가면서 물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자사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자사주는 이슈도 안 됐어요. 원래 자사주는 자본금을 그만큼 임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무에 위반돼서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거에 대해 거의 학설 대립도 없었고 그래서 시험문제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이슈였는데 2011년쯤 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에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예외적으로 보유하도록 해 줬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표를 한번 좀 보여 드리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10%, 10%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보통 자사주라는 게 1~2%를 가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는 건데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회사가 120개나 되고 5% 이상 가진 회사들도 227개나 됩니다, 코스피 821개 중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게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 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배당을 받는 것과 똑같아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주환원정책으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각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경영권 분쟁 같은 거에 대비해서 우호세력한테 넘기고 그걸 찬값에 넘기게 되니까 오히려 주식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코스피 5000을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처럼 주식시장 활성화의 어떤 브랜드 정책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 자사주를 헐값에 우호세력에 넘기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자사주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론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처분에 있어서도 의무를 강제할 거냐 아니면 공정하게 처분되도록 할 거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자사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는 아예 시가총액 계산할 때도 뺀단 말이에요. 아예 자사주를 보유하면 그때부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건 주식이 아닌 걸로 쳐 가지고 소각된 걸로 의제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을 할 때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통도 안 되는 자사주가 다 시가총액에 들어가 있어요. 학계에서는 한 6%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한 6% 정도 거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도 장애를 주고 있는 거고 한 주당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통도 안 되는 주식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평가가 되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시가총액이나 한국에서의 한 주당 주식 가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투명한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외국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도 많은 교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도,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사주 문제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하고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해서 사실상 자사주 소각을 의제하는 형태로 돼 있지요?

○증인 김세완 예.

○김남근 위원 잘 모르세요?

○증인 김세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자사주는 다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세완 예, 지금……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게 자본금의 10%예요, 전체 주식의 10%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금의 10%라는 건 사실 전체 주식 수로 따지면 1%, 2%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들은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중요한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본시장 소각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애플, 구글 이런 데들이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를 줘서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으로도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려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임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든가 우리사주에 배정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전환사채나 주식 인수권부사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요구할 거에 대비해서 일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만 보유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해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자사주 소각 정책을 하자는 것인데,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한 어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자사주 소각정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김세완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마다 회사마다 자사주 정책이 워낙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사주 정책이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 소액주주 권리강화에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남근 위원 그런 자사주 문제, 앞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많은 토론들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지금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자들이 많이 나와서 발제도 하시고 또 연구보고서 같은 것도 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세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자본시장법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개중에는 서로 공통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정책이라 그러면서 합병하고 쪼개기 상장, 이중상장을 할 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입법들도 발의한 것 아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양쪽 다 발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중간에서 가지고 잘 조정해서 빨리 입법하면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1분만 좀 더 주시면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김남근 위원** 금융위원회가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입법, 입법로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양쪽 여야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입법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니 뭐니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야당도 찾아가시고 저희 여당도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의견을 좁혀서 쟁점이 뭔지도 정리하고…… 저희 위원들끼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쟁점을 정리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쟁점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쟁점의 차이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되면 의견을 좁히는 데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안소위 안 열려도 금융위가 찾아다니면서 쟁점을 좀 좁혀 가지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도 보여 주셔야 된다. 지난 금융위원장처럼 그렇게 소극적 행정하면 안 되고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효과적인 입법 지원 활동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세완 자본시장……

○**박상혁 위원** 저도 중인신문 짧게……

○**위원장 윤한홍** 짧게 하시겠어요?

○**박상혁 위원** 중인 나오신 김에 1~2분짜리……

○**위원장 윤한홍** 아니, 중인신문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보충질의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세요.

○**박상혁 위원** 그 뒤까요?

○**위원장 윤한홍** 예, 나중에 다시 따로 하지 말고.

○**박상혁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윤한홍** 예. 내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금융위원장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주를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지 않을 부작용은 없나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자본시장 벤류업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은 어느 중인에게 하시겠습니까?

○박상혁 위원 김세완 중인……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하세요.

○박상혁 위원 김세완 중인 하고 쭉 다 나머지 질의도 하고……

○위원장 윤한홍 예, 같이 하세요, 불여서.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상혁 위원입니다.

김세완 중인, 모습이 지금 너무 위축되신 것 같으세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여야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보내 주시고 또 원장님도 국회에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들, 적극적으로 국회가 입법하는 데 많이 지원도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증인 김세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합병검사인 관련돼서 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합병검사, 제가 자본시장법을 작년에 냈었는데 그 취지가 ‘합병검사와 관련되어서 합병으로 인해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많이 침해당한다. 평가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증인께서는?

○증인 김세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독일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이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합병검사인을 선출하고 합병검사인이 합병 비율의 산정,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로 이러한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고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런데 금융위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제도와의 중복규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의 지연 가능성을 들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문가인 자본시장연구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증인 김세완 제가 이 합병검사 건에 대해서는 공부가 아직 미진한데요.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저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앞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증인과 관련돼서 제가 서면질의도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외부평가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 주신 말씀 그 취지를 좀 더 살리는 쪽이 뭐가 있을

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법 개정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법을 많이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냈던 법인데 공정배상기금법을 제가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공정배상,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자라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님과 위원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그 취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 부분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느 과징금을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는지, 때침은 어떻게 시킬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기재부 출신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국고로 가고 나서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또 은행권, 금융업과의 여러 가지 지도, 법령 개정 필요하고.

그런데 사후적인 배상 문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공정배상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부처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반대를 합니까? 기재부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협의를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 관련돼서 후보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합병검사인제도라든지 공정배상기금법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다 하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혹시 또 추가로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신문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김세완 증인과 오규식 증인 고생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퇴장하십시오. 팬찮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것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을 모아 놓고 금융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이찬진 원장도 아마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정권이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시중은행……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업권별로 보통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군요.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에 대해, 금감원에 대해서 명령권을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혹시 그 법, 금융위 설치법을 쭉 한번 다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금감원의 처분에 대한 취소권 같은 것도?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MBK 사태를 보시면,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홈플러스와 MBK 사이의 인수인계 약정사항, 저게 2015년에 인수된 것이 다 마쳐졌다고 공공 조항,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과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지금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고발 조치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CP 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적 부정행위……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지요? 고발입니까, 수사의뢰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고발입니다, 고발.

○박범계 위원 고발. 정식으로 한 거네요?

그리고 그 뒤에 금감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사 의견서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제출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검사 결과 의견서라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검사 의견서 정도로 아마……

○박범계 위원 프라시큐터(prosecutor), 검사가 아니고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래서 이 구조를 위원장후보께서 잘 아셔야지 이것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봐요.

2015년에 인수 약정을 했는데 아직도 이 인수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수자금을 유동화를 거쳐서 마련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유동화증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채무가 뭐냐? 그거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즉 인계를 한 홈플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업 구매전용카드 대금 채권이에요. 즉 홈플러스가 롯데카드에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저 채권채무를 담보화해 가지고 ABSTB라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걸쳐서 걸쳐서 소위 저 ABSTB 증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 규모가 현재 2025년 3월 기준으로 40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저게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가능성성이 높아요. 왜냐?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회생신청을 했잖아요.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이게 변제가 되지 일반채권은 다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4000억 원이 넘는 저 유동화증권을 산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롯데카드, 홈플러스 그리고 인수자인 MBK가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했으면 아마 큰 의심을 안 받았을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롯데카드의 주인이 누구냐? MBK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MBK가 최대주주가 된 시점이 2019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동화증권 발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MBK 입장에서는 인수대금을 홈플러스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롯데카드가 갖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공교롭게도 회사정리, 즉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가 된다. 롯데카드하고 MBK는 같은 회사예요, 인수자가. 그 인수자금을 유동화를 통해서 만든다? 웃기잖아요. 이거는 인수자인 MBK가 이러한 홈플러스의 경영 부실 상태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인수자금을 유동화증권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채권, 유동화채권을 사실상 소각하고 무용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탕감받으려는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고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사기적 거래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 거래관계를 이해하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반적인 구도는 알겠는데 세세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박범계 위원 저한테 지금 처음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란 말입니다. 법원을 낸 사기행위예요. 소송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리적 개념 중에. 법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 채권이 소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억 원이 넘는 이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고전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대적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가장 현대적 사기 수법.

여기에 우리 금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냥 검찰에 고발해서 던져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분석을 해서 검찰에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1분만 추가하고 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하세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냐?

대책이 뭡니까,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뻔뻔하게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런 과정에서 진짜 불법, 사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사법조치가 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 보좌관이 만들어 준 자료에 의하면 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소위 거래 관계상 카드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우회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ABSTB잖아요. 이것을 공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투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카드사가, 롯데카드사가 사실상 주인이 MBK란 말이에요. 59%의 지분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MBK가 홈플러스의 경영 부실 상태를 이용해서 쌍방에 인수해 가지고 롯데카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카드사에 대한 뭔가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는 것도 느낌이 가시지요?

그리고 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관사가 있고 또 종된 증권회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되실 거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금융위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가장 큰 현재의 현안이다. 그래서 이 점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살펴만 보시면 안 되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 잠깐만, 1분만 하고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를 수십 건 했는데 절반가량이 오지 않아서 오전에 대해서는 꼭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주식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왔는데 배우자 관련하고 자제분 관련해서는 안 왔어요,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2개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찹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진행 중인데 배우자와 자제분, 따님이 연락이 안 돼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지금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답니다.

이게 청문회장을 우습게 알고 청문위원들을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거짓말이 좀 그럴 듯해야지, 오늘 하루만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저녁 전까지 2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아니, 단순하게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후보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닙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사건 수임 내역을 전부 내라고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사건 수임 내역을 다 낼 수 있는지 또 그 해당 기관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지 그 것도 아마 좀 따져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답변한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최대한으로 오늘, 이양수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제출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자료를 양이 너무 많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협의해서 낼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자료 안 내고 버티다 오늘 와 가지고는 연락이 안 돼서 개인정보 동의를 못 받아서 제출 못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연락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쟁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후보자께서 생각해도 연락이 안 돼서 자료제출을 못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청문위원들이 후보보다 도덕적이라서 질의를 하고 후보보다 경제·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들과 상관없이, 청문위원들의 눈높이와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분이 금융위원장이 되실 분으로서 가치관과 철학과 능력과 실력을 가졌느냐 그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에 딱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금만 위원님들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이 좀 상하는 얘기하면 발끈발끈하고 그러시는데 국민들한테 계속 발끈발끈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송구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구합니다.

○이양수 위원 저희가 묻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묻는 것을 대신 묻는다 생각하시고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사외이사 겹치기 난 안했다라고, 3개 겹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개 이상 겹치기 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사외이사만 2개 겹치기 하신 거였고 실제로는 3개, 4개 겹치기 근무하신 그 정황이 다 나옵니다. 인정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기간이……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한덕수 전 총리는 수십억 벌었는데 나는 6억밖에 안 벌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과연 국민들께서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거든요.

사외이사 할 때 회의수당 한 번 가셨을 때 얼마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회의수당은 따로 안 받고요.

○이양수 위원 월 얼마 받으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월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양수 위원 월 500 받으실 때 몇 번 출근하셨나요, 한 달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양수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엘에프에서 총 1억 6000을 받으셨어요, 2년 5개월 동안. 51회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회당 320만 원 꼴이 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지금 월급 300 받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 500 받고 이러는데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고 320 받고 500 받고……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것에 성실하게 송구한 자세로 답변하셔야지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장관 합니까? 그 사람들이 금융위원장 와요?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후보자만 금융위원장감이라고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양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던 맨 첫 번째 PT 좀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재난지원금 즉 보편 지급하고 성격은 같은데, 아까 후보자께서 이미 답변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보편 지급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생소비쿠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기재부차관 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물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가재정상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민생이 위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15만 원은 있지만 마지막 10만 원 부분은 90%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대동소이한 답변이라서……

저는 금융 수장으로서 금융정책도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입장과 소신이 바뀔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음 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찬진 금융위원장을 세간에서 실세라고들 합니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고, 사실 금융 관련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금융감독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와 발언들이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네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 금융위원장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빅테크,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배달의민족 대표들 간담회 오라 그래서 간담회 금감원장이 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은행권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금융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금감원장이 대신해 주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고요. 금감원장은 그 내에서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 그런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 원칙하에 원팀 정신, 같이 가는 기관이니까요 두 가지를……

○이양수 위원 산하기관이 자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거는 금융위원장이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법질서를 무시하고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한다면 위원장이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금융위원장이 실세고 금융위원장은 바지 사장이다. 금융위원회 이제 없어지게 되면 금융위원장은 재경부장관으로 갈 거고 금융은 모두 이찬진, 지금 금감원장이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파다합니다.

그런 얘기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기획재정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신 만큼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위기도 있었을 거고 그 위기들을 같이 극복하고 경험하셨을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때 다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때 후보자님께서 기재부의 경제정책국장으로 계셨었고 또 이후에는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대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당시에 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때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정책 당국자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이 위기의 정체는 뭘까, 이 위기의 본질은 뭘까, 어느 정도까지 오는 건가, 그랬을 때 이거는 거의 재난상황이다, 긴급상황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총력적으로 전면전을 펼쳤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이라는, 아마 다섯 차례 같습니다. 다섯 차례 연속해서 굉장히 큰 결정을 신속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막는데 굉장히 큰 역할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고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이 신속하게 있지 않았으면 기업 부실도 있고 가계 파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상상황에 준비를 한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교훈을 삼아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추진하실 정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 정부가 특히 민생이나 서민경제에 관심이 많고 또 국정과제 중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도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얘기를 좀 하셨지요. 소위 말하는 배드뱅크 정책인데요. 사회안전망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장기연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

는 것은 7년 이상, 50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연체에 계속 추심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심지어는 주거도 갖기가 쉽지 않은…… 계속 추심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다 압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정상적인 경제생활 바깥으로 가고 잘못하면 사금융으로 가고 또 잘못하면 범죄 이런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보호하거나 다시 재기를 안 해 주면 우리 사회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장기연체채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장기연체채권 조정하는 과정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실 상환자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강구된 게 있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만기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 감면을 해 주거나 이자 환급을 해 주거나 그런 게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 자금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성실 상환자분들을 위한 인텐티브제도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난 7월 11일에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된 게, 물론 평균치긴 합니다. 그런데 채권 매입가율을 5%로 설정해서 채권을 소각한다는 건데 금융업계에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계에서 5% 채권 매입가율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권에서 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도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된 게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제 집행해 나갈 때는 세부적으로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말씀하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계속 찾아가면서 궁극적인 방향으로는 계속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중간중간 나타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법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채무 정리 정책들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채무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아는데 파악된 게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탕감이나 조정뿐만 아니라 결국 이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해서 소득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진짜 제대로 된 정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가 다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말인즉슨 이게 단순한 빚 탕감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취지 자

체도 무색해지지만 사회적으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조정 후에도 끝까지 채무 연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체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조작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때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추가조작 근절 협동대응단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 감독체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은 단계단계로 해서 하나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건데 이것을 그냥 한 보디에 다 모아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같이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적발하든지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과거에 큰 실적도 있으신 만큼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탁상공론으로 되지 않고 그 이후까지도 탄탄하고 촘촘하게 보완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여러 가지 꼭지의 질의를 좀 할 건데요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통제 기능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정책이 가장 프런트에서 금융소비자들과 만나서 실현될 때 각종 정책금융의 제일 최종적인 판매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사진 한번 보시면 2022년까지는요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례적으로 노사정 정책협의체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머리 하얀 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 가운데 계신 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왼쪽 사진의 맨 오른쪽 보면 머리 짧게 깎으신 분은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이시고요 오른쪽의 위쪽 사진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옆에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인 박홍배 위원장님 계세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 위원장. 2022년까지는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해서 살펴보고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노사정 대화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노사정 대화 반드시 복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노동이사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이, 금융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것 금융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도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데 대체로 많이 얘기되는 게 신보하고 기보 그다음에 주금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금융공공기관 개혁 및 통폐합을 할 때 설립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특장이 뭐고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보하고 기보를 좀 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은, 뒤에 다 보증기금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설립 목적 자체가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 신용 보강, 자금 조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목적이 기술혁신형 기업 특화보증이고요 신기술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증기금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설립 목적과 활동하는 방식, 특장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적인 통합 대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지요.

이 두 기관이 통합이 되면, 묻지마 통합이 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보증기관 선택해서 편의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상실할 수 있고요. 전문성과 차별성 약화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보 간에, 기술보증기금 보증 시장에 독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그 생태계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 협의체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기관이 다른데 기관장이 한 사람인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예요. 서금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서금원은 서민 대상 대출상품 운영하는 곳이고 신복은 채무 감면과 상환 연장 등 채무조정하는 데예요. 대출상품 주는 데랑 채무조정하는 것은 완전히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관장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같이……

저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장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 부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하나는 통합 관리가 필요한데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하고 중기부인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감독 관리는 신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융위가 신보에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무 지시하면서 추후 손실은 정부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해당 예산편성을 못 받았어요. 1700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전액 삭감돼서. 일반보증 2.1조 원 보증을 못 했어요.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과 예산업무를 통합해서 어느 기관이든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관리감독 업무는 신보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중기부에서 하고, 중기부에서 예산편성 못 받으니까 신보는 일을 못 하고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 관리할 건지?

그래서 금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아시고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정

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ELS 과정금 관련해서요 금소법 57조에 보면 현재 법령에는 위반할 경우 금융업자가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ELS 잘 아시지요? 판매현황 보면 판매금액은 15조 6600억, 여기서 금융기관들이 얻은 수수료 이익은 1800억, 그런데 이미 자율배상으로 1조 3680억 원 정도 배상을 했어요. 93.8%입니다.

그러면 과정금 처분의 기준인 수입이 뭐냐? 판매금액이 수입이냐, 아니면 수수료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수입이냐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판매금액의 절반까지를 과징금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지요.

2분 더 하고 추후에 추가질의 안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안 하신다고요? 2분.

○신장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매수입에다가 과정금을, 전체 판매수입을 수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판매가격 전체가 수입이냐 아니면 판매하고 나서 받은 수수료가 수입이냐…… 이걸 정돈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융기관이 ELS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입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는 불안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입의 기준이 뭐냐 이 부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판매수입대로 하면 15조 6600억의 과반, 5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새출발기금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새출발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채기 지원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중개형이지요. 하나는 중개형이고 하나는 캠코가 부실채권 사서 소각하는 매입형. 중개형은 채무조정까지 76.6일이 걸리는데 매입형 즉 ‘금융기관이 부동의한다. 이것 조정 안 하고 그냥 부실채권으로 할래요. 매입해서 소각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건 채무조정 기간이 266.3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데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의돼서 매입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요, 266일 동안.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카드사는 부동의율이 거의 100%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중개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입형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266일이나 되는 이 기간을 단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선을 탈지 당사자는 몰라요. 금융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받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정리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답변 필요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대리 강준현 간단하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일단 노동조합이랑 같이 가는 부분은 저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경영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공공기관 개혁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다는 그런 측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랑 서금원 겸직하는 문제는 실제로 봤더니 이게 또 그렇게 하는 게, 대출도 하지만 이분들 채무조정하고 같이 돌리고 이런 게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보, 중기부 이런 중기부랑 또 관계부처랑 협의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요.

ELS 과정금 부과기준의 수입 등 의미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하여간에 중개형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너무 매입형이 오래 걸리는 것 이 부분도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인터넷전문은행하고 카드사 부동의율이 거의 100% 되는 부분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차분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주요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을 유배당 계약자 몫의 부채로,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줄 빚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IFRS17, 일탈회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 15.4%를 소유하게 돼서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 영향력을, 그래서

갖게 돼요. 실질적 소유주,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분법 적용을 회피해서 계약자 이익 배분을 축소한다는 지적, 이 두 가지의 논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마침 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인 IFRS17 기준에 맞게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회계 논란 문제의 뿌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삼성생명이, 지금 1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서 만든 고객의 보험료, 약 54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 주식의 가치는 현재 5400억이 아니라 수십조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막대한 평가이익에 대해서 종잣돈이 되었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 130만 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몫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져 보면 이 문제가 이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계열사의 주식 평가를 하는 방식이 지금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시가,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권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기타금융기관의 모두는 전부 다 이런 시가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만 유독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PT를 보시면, 보험업법 106조에 보면 보험사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런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업감독규정이 국제회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저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 명확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사례에다가 비유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표 한번 보시면 지금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38조 정도 되는데 이것이 3%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7.1조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위법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5.7조기 때문에 2.42%예요. 그래서 3%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제회계기준 또는 다른 금융업종으로 비교하는 시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34조 700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14.6%가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업법 제106조에 근거해서 시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무려 11.6%를 매각해야 됩니다. 27조가량을 매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면 0.36%밖에 되지 않지만 시가 기준으로 하면 6.78%가 돼서 지금 오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노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준에, 좀 전에 제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말씀드렸고 그전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님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도 시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130만 명에 달하는 유배당 보험계약자들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 주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 기준 할 때, 그 비율 할 때 시가, 시가, 시가, 원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감독규정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 이걸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김현정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그거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보험업감독규정에 지금 어떤 근거 규정도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 다 좀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걸 고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대안을 만드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2분만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김현정 위원 제가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이번에는 조금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은행 평균 급여가, PPT 한번 보시면 은행의 평균 급여가 대기업보다 높다라는 것은 이미 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PT를 보시면 올해 대만의 2분기 GDP 성장률은 8.01%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대만의 성장 배경은 자본을 AI라든지 반도체 같은 생산적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 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묶여서 성장률이 저조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생산적 경제로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데, 다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기후위기 부분 까지 생산적 금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생산적인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에 묶인 자금을 녹색산업이나 신성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금융이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경제나 금융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 58조 2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명 기후금융법이 아직 없습니다. 기후금융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전략과 이행계획을 주주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것도 본 의원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그 내용인데 이런 것들,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나 기업의 기후경영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기후금융 이런 토대가 좀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생산적 금융에 더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억원 후보님의 주요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현황을 보면 기재부차관 퇴직 후 3년 2개월 동안 총 여덟 곳에서 근무하면서 6억 2662만 원을 받아 가셨어요.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각종 자문료, 강연료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400만 원 자문료 받아 가지고 비씨카드에서 강의하시고 438만 5000원 가져가셨어요. 두 나무에서는 강의 한 번 하시고 548만 원을 받아 갔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문료 1980만 원, 전북연구원에서 1500만 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매년 이렇게 자문료를 막 받아 가셨네. 굉장히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있는 강의, 자문료 수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상훈 위원** 후보님, 농협·축협·수협·신협, 상호금융업계가 요즘 많이 어렵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상훈 위원** 작년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 상호금융업계의 손실충당률이 너무 과하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손실충당률 인상을 유예·연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사정도 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24년도의 손실충당률을 110%로 설정했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10% 올려서 120%, 하반기에도 10%, 130%.

손실충당률을 상향 조정하면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긴박하게 올려놓으면 오히려 농어업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한 자금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 연달아 충당률을 10%씩 올릴 게 아니고 내년으로 연기·유예 조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봄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부동산 대출 부실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업계 사정까지 다 감안해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세요.

그다음 6·27 대출 규제의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출 규제를 하면서 본인의 연간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다고 하니 통상적인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우니까 지금 대부업 쪽으로 대출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금융, 대부업 대출 신청 사례가 85%가 늘었어요. 서민들의 자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최근에 오토론(자동차담보대출) 문의도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우리 내국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중국인들은 신이 났어요. 자국 금융권의 대

출을 받아 가지고 국내에 주택 마련한 호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만 6000호가 됩니다, 5만 6000호. 우리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집 마련하는 꿈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인들은 국내의 주택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본인들 자국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금융 사각지대에 중국인들만 득 보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6·27 대책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요자 위주 대책이긴 한데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가 안 되게 여러 가지를 챙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것은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소중한 집 한 채 구하는데 대출 안 받고 가능합니까, 서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과 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꾸 중국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중국인 4명 중의 3명은 자국 은행 대출이나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국내 금융의 대출 규제의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받지 않고 좀 원활한 자금 사정으로 해서 본인들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방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 부분은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제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가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좀 싸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후보님, 오전에 다른 질의를 하다가 제가 주요하게 할 질의를 좀 놓쳤습니다. 다른 질의의 취지는 후보님이 많이 번 것과 관련해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선배들의 잘못도 크다, 그래서 후배들 관련해서는 금융 수장으로서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 23년에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부대의견을 내면서 24년까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준비가 아직도 안 된 거지요? 언제 정도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정기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리고 거기에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많은 쟁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은행만 발행할 수 있느냐, 은행 외의 혁신기업도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 관계부처 계속 협의 중이고요. 대강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하여간 그게 좀 굳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예, 좋습니다.

후보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상자산은 아직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혁신 기회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기회인 이유가 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지금은 용도가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데 이게 지금 결제 이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송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민병덕 위원** 그렇지요. 가상자산 코인이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데 이것이 가격이 등락을 해서 널을 뛰니까 기준이 되지 못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준이 돼서 지금 결제 수단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 것에다가 결제수단까지 돼 버리니까 이것이 향후에 결제수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그 혁신 기회라면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사용 편의성이 높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면, 이것은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빨리 습관화되면 그것이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보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자를 스케일업 하면 이기는 것인데 이 혁신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가 답이거든요. 그것이 은행권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혁신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습관화돼 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중 검토’, ‘신중 검토’하면서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즉 신중하게 고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검토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빨리 논쟁을 해서 결정을 짓고, 속도에 뒤쳐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스테이블코인 만들었는데 다 습관화돼 가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채무 탕감하고 있는 것 알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이것은 금융회사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이것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어떤 계획을 할 거고요,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민병덕 위원 PPT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실은 캠코·신보·기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코나 기보나 신보에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게 얼마냐?’라고 조사를,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캠코에는 4조 60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2만 30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나?’ 이러면서.

그래서 아까 김용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요구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추심을 위해서, 얼마나 추심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추심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심 비용만, 소송 비용만 한 이삼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신보·캠코·기보냐에 따라서 이런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 측면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말씀 주신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신보에서 연대채무가 있습니다. 신보에서 연대채무라고 하면 상상을 해 보면 주채무자가 회사고 사장님이 연대채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2009년 이후의 회수율을 보니까 1.8%입니다, 회수율이 1.8%입니다. 올해의 회수율은 0%입니다. 이것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장님을 거기 끌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게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에 위원님 주신 것, 취지 해서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채권자가 은행인 것도 채무 탕감하는 판에 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것에 대해서도 궁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저도 2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예.

○민병덕 위원 마지막으로요 21년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23년 10월에 ESG 금융추진단 3차 회의에서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요 유럽의 ESG, 언제부터 의무화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유럽에 다가는 언제부터 공시의무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29년, 28년 회계연도.

○민병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해야 돼요? 재작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7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민병덕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시 안 하고 유럽에 다가는 공시하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같은 시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공시의무를 지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공시의무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럽도 보니까 하다가 일부 국가는, 독일은 약간 빠진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던데 하여간에 주요국 논의 동향 봐 가면서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ESG가 지속가능한 것 관련해서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요, 10만 명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게 법정 절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정부와 법원이 나뉘는 부분이 있고, 대신 말씀하신 대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것은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관계부처랑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넋 놓고 있다가 10만 명 거리로 나왔으면 정권 초기에 꽤 안 좋습니다. 민생과 관련해도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장재정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그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경제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김재섭 위원 지금은 어쨌든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확장재정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확장재정의 재원은 결국 조세수입, 안 되면 국채, 두 가지지요.

○김재섭 위원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거창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확장재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을 왜 후보자님께서는 열심히 안 내셨는지 제가 그걸 따져 물으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확장재정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자님이 세금 안 내시고 다른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확장재정 할 수는 거니까 제가 그걸 좀 비판을 드리려고 앞서 말씀드렸고, 관련해 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한 456만 8390원 정도의 체납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제가 해외 제네바 근무할 때인데 재산세가 고지된 것이 저한테 도달이 안 돼서 제가 2015년도에 귀국하기 전에 뭐가 찜찜해서 봤더니 이게 있던 것 같아서 구청에다 전화해서 제가 완납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해명하신 내용을 기사에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연말 정산할 때 조금 실수를 하셨고 그전에는 체납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는 체납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재섭 위원 이렇게 약간 실수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음 것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 압류된 사실이 하나가 있고 2003년에도 압류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제네바에 계셨을 때 착오라고 보기에는 압류까지 당할 정도의 반복적, 계속적인 세금 체납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2003년에도 제가 해외에 나가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3년 나가 있었는데 결국 3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2003년에 한 번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2015년에 했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도달이 안 됐는데…….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다 세금 체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압류까지 당해 가면서 그것도 두 번이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김재섭 위원 어쨌든 금융 수장이시니까 이런 부분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되고, 평생 공직자로 사셨으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상자산 관련해서 내재

적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게 질의가 왔는데요.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냐 1번 2번을 주셔서 화폐는 변동성이 있어서 아니고 금융상품은 경제적 권리관계, 지금 있는 게 예금·대출·투자상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고 그랬지 가상자산이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랑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재적 가치를 따질 문제는 이미 훨씬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뜨악했던 것이, 그런 맥락을 제거한 상태에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폄하를 하는 발언이 있은 이후에 알고 보니까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계셨고, 그것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뭐야,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고 해 놓고 왜 후보자 본인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계다가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나무에서 한 548만 2440원 정도의 강연료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강연 가면 많이 하는 게 한국 경제 진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과거·현재·미래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렇게 강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이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대한민국 역시도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저는 목표를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정합성,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 그다음에 경제의 실물 부분은 뭔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줘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된다.

이 세 가지 틀로써 저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도 1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하고요. 2번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은 좋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융위원회 입장은 죽 들어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디지털자산을 다룰 때 그것을 증권이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오픈AI가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내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법정 담보금이나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을지, 만약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은행권과 기업 간에 혁신 주체를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건데 대략적인 방향성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논의 중이니까 말씀을 못 한다는 거는 시장을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이 불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막아 낼 것이냐 이런 나름의 틀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지가 한참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디지털자산 관련한 논의들이 불붙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아직 취임 안 하셨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거 생각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다 발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은 아무리 신중하다 하더라도 말씀은 해 주셔야 업계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취지 공감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준비들을 철저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걸 어떻게 할지는 관계부처 협의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은 시기에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짧게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빨빠르게 전환된 것이 상당하게 국민적 생산능력을 키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속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화사회 진입을 시켰거든요. 국민들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상자산 시장 이게 사실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 싸움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확산을 시켜서 일반화시키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십분 착안하셔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코스피 5000 관련입니다.

우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액주주들한테 계속 누적됐고요. 이마다 보니까 시장 신뢰가 무너져서 외국 자금도 빠져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뢰의 문제인데 시장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

가 들어서서 2400~2500선에서 놀고 있던 코스피가 지금 3100~3200선에서 그 허들에 둬여 있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신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금융위가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절 의지를 보여 주는 것들이 그런 허들을 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증권선물위원회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어요. 이것 금융위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런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대표적인데요. 2013년 경찰은 증선위에 내사를 통보했지만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종결했어요. 고발과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4년 3개월 만에 내놓은 거는 김건희 대면조사가 4년 3개월 만에 첫 번으로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중대한 의혹으로 떠올랐는데도 증선위는 수년간 사후적인 고발에만 머물렀고 이마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만 계속 봤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 증선위 제도 개선·보완, 후보자께서 이끌 수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럼요.

○이강일 위원 자본시장 관련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일곱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쭉 거명해 보겠습니다.

보시지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될 거, 시세 조작. 그러니까 주가조작이지요. 전문 주가조작 세력이 있어요. 프로트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직하고 차명계좌 동원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경쟁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벌인 거 이게 카카오, SM 사건입니다. 맞지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두 번째, 허위공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이브 언아웃(earn-out) 계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전계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수천억 규모였습니다. 그것 은폐했습니다. 여기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도 우크라 재건 문제를 테마로 해서 허위 MOU 공시한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부자거래입니다. NH투자증권, 메리츠 임원들이 M&A와 공개매수 정보 사전에 이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그리고 이거 아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기자들이 경제 전 기사 발표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선행 매매한 사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가 볼까요? 횡령과 배임 이거 더 혼합니다. 이화전기, 경영진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 폐지됐지 않습니까? 비피도, 셀젠텍, 한국유니온제약, 쌍방울 이런 회사들도 대주주 횡령·배임으로 무너진 겁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상장 과정에 대한 문제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의정활동 중에서 더본코리아가 고평가 상장의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

면 분명히 소액주주들 피해를 볼 거라고 얘기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상장 강행했습니다. 6만 원대까지 갔지만 오늘 2만 4100원인가 얼마 찍었더만요. 이거 상장가 자체도, 공모가 자체도 3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폭락한 거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런 사건이 분명히 예견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강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에 금융위하고 증선위 대응도 늦었어요. 중요한 사건, 사후 고발에 그치고 있고요. 결국 예외 없이 검찰 수사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데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면 시장 신뢰를, 극복하고 다시 신뢰를 찾아내는 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마지막 일곱 번째, 투자자 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글쎄요, 미국은 회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어떤 부작용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을 인지하면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Form 8-K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나라 말로—Form 8-K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SEC라고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거래정지를 최대 10일로 끓어 놨고요. 그 이후에는 조건부로 재거래를 허용해서 투자자에게 이런저런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도 최대 30%까지 아마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펀드도 있어 가지고요 불법이익 이득을 뺏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환급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집단소송제도도 당연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건이 확정된 후에나 공시를 하고 있고요. 거래정지가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갑니다.

죄송하지만 1분 정도만 더 양해해 주십시오. 끝내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요.

○이강일 위원 몇 년이 걸려서 투자자는 자금이 그 기간 동안 뚫인 채 속수무책입니다. 과정금이 국고로 귀속되고요 피해자 보상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미국처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하여간에 근본적으로 뭔가 저희들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신속 적발하고 금전적 이익은 박탈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퇴출하고 이런 정신으로 지금 이쪽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의 실질적인, 어차피 후보자께서 되시면 이 부분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중요하게 다뤄 주시고 바꿔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한국형 공정기금 도입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불공정거래 근절이야말로 코스피 5000으로 다가가는 키입니다.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꼭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가 몇 분 나오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배드뱅크라는 게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원래 취지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총 113만 명, 16조 4000억 정도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데……

그래서 2차 추경으로 4000억 추경예산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당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쳐져서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을 돋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후보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6년 10개월 된 것은 이 제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500만 원 연체되면 해당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柳榮夏 위원** 이런 기준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봅니까? 이것로 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대상자 신청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소각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면 빚이 감면되는 겁니다. 그냥 로또처럼 5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 조건이 안 되면 감면을 못 받는 거고,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외국에도 이런 배드뱅크 사례 잘 아시지요? 미국의 타프(TARP)도 있고요 아일랜드나마(NAMA)도 있고 스웨덴은 세큐럼(Securum), 이게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형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로 후보자가 더 잘 아시겠지요.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일부 있어서, 그때도 소각해 주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대로면 소요 예산이 8000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8000억 중의 4000억은 추경을 확보했어요. 4000억은 은행권, 금융권에 부담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어느 은행권에 얼마를 부담시킬지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에 3500억 그다음에 대부업체와 제2 금융권 500억 이렇게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 결정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지났거든요. 그러면 2은행권 중에서는 과연 어느 은행이 얼마를 낼 건지,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 건지, 어떤 금융사가 동의했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 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보면 32조 1항의 개별 동의, 32조 7항의 사전 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해요. 그런데다 최초 수집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게 되면 신용정보법 33조, 개인정보법 17조·18조에 저촉될 수 있고요. 거래내역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통보되면 금융실명법 위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입법 불비가 있으면 입법 불비를 벌충하든지 아니면 이 정책을 제안하시면서 사실 입

법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제가 알기로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채권 매입비율은 한 5% 정도로 정해진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이 2조 가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대부업체의 매입가율을 제가 알아보면 한 이십 몇 %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한 25~30% 되거든요. 25~30% 되는데 5%에 매입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2조 원대로 하면 1000억에 처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체랑 제2 금융권 합쳐서 분담금도 500억을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감독권도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은행권에서 부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00억 만약에 은행권에서 분담 못 한다, 이게 이번의 개정 상법에 따르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주주소송 대상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 내게 된다, 4000억 확보 못 한다 그러면 그 4000억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그때 책임 누가 져요? 그때도 추경 다시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모럴 해저드 얘기도 나왔는데 장기간 빚에 허덕여서 이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지요. 이자 감면해 주고 연장해 준다? 아니,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은 탕감 안 해 주고 이자만 감면해 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원금 탕감해 주는 게 이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저는 전혀 형평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경제 관료로 오래 근무하셨고 또 지금 새 정부의 장관급 위원장으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관료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정책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되기 전에 정해진 정책입니다. 원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끼칠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정부가 임명 제청을 했을 때 제청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경험을 들어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니, 변호사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법률 자문했고 금융권에 관한 소송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갖고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가 맞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주십시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그러세요.

○柳榮夏 위원 시장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민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력만 강조했어요.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을 잠시 하셨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또 본인 주택을 저당잡혀서 5억을 벌려줄 만큼 막역한 사이였겠지요. 변호했던 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어요.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에서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지요, 이분이 금융권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군다나 금융위원장후보자에 지명된 이후에 금감원과 협업을 자꾸 강조하시는군요 금융위원회법 제18조 한번 보세요.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에요. 대단한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시니까 시중에서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 감독원장이 실세고 위원장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런 게 됩니다.

지난번 정부 때 이복현 금감원장도 하도 오지랖 넓게 해서 제가 몇 번을 나무란 적이 있어요. 저는 위계질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본인이 금융소비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반대. 그런데 후보자님은 전부 가정에 의해서 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벌써 시장한테 그렇게 미치는 겁니다. 유념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후보자님, 오늘 오전에 부동산 신용 편중 현상의 구조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에 서로 같이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 부동산 쏠림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일단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쌓이니까 가계의 건전성 문제, 소비 동향까지 이어지는 문제 이게 결국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이 자원들이 생산적인 데 못 가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못 올리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요.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저출생의 문제,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저는 이 부동산 편중에 의한 대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한

번 보시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19년도까지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가 전문과학이나 전기장비, 제조업들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중간에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측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렇게 대출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이나 제조업이 거의 플랫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이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이렇게 부동산 신용률이 한 40%, 45%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용이 GDP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0.1로 쭉 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GDP 상승 기여도는 끊임없이 하락되는 거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지요, 생산 높은 쪽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6·27 규제,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알지요? 율은 떨어지지만 절대금액 증가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금융 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또는 부동산 신용 편중 해소 방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얘기한 걸 보면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지금 15%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5%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한다든지 좀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러니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하한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바젤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한이 15%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이 돼 있는 거지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걸 좀 올리겠다, 올리는 것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지금까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내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되시면 이런 부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기업대출이라든지 벤처투자 부분들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금융회사를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 한축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유인체계를 어떻게 바꿔 나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빗썸하고 업비트가 지난 7월에 최대 4배까지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렌딩플러스라고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업비트는 즉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빗

썸은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신용공여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점 파악하시고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지금 70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동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얼마 안 됐는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의 33.7%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KRX의 15%를 못 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793개 거래 가능 종목 중에서 79개가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현재 경쟁력으로 봐도 이런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성을 보면 별로……

저 1분만……

크게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 트레이드에만 의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ETF라든지 지수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를 주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노하우가 크게 쌓여 있지 않아서 허약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793개 중에서 79개가 정지돼 있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령을 고쳐서, 물론 단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었지요. 2019년의 DLF 사태 그리고 라임 사태, 21년의 홍콩 ELS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듯이 홈플러스 전단체 사고까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익을 우선하고 위험을 축소·왜곡했고

소비자는 원금보장형으로 오인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금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기관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문제 제기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새 금융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큰데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반복하는 이유는 불완전판매를 해도 결국 책임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그런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노동자들은 불법행위에 내몰리게 되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한창민 위원 이 같은 현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에 징벌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적 조치로 하자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금융에 도입을 하자, 더구나 6대 판매원칙 중에서 지금은 설명의무만 있는데 적정성·적합성 의무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금융 수장후보로서 이제는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할 때 말씀 주신 이 사항 까지 해서 폭넓게 논의가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2020년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취지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의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임명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 한번……

○한창민 위원 그동안에도 논쟁거리는 있었지요. 당연히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피해가 반복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새롭게 도입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정부 안에서도 되지 않으면 더욱더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즉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기업에 비용 부담이 추가될 여지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는 매번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들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지난 대선에서 명확하게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 대폭 강화를 공약한 바 있고요. 다행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다만 최근 신임 금감원장께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약에도 조금 맞지 않고 거기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제도 설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책 혼선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으로 볼 때 독립적인 금융소비자기구 출범은 매우 중요한 논점인데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점점 고령화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결국 금리라든지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계속해서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 말씀은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면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이런 답변들은 그동안의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답변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도 설계를 하고 좀 더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한창민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님은 모두발언에서도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사업인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채무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0억이 배정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가 113만여 명에 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캠코가 과거 유사 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등인데, 제시된 자료처럼 2004년부터 시작된 채무조정 사업으로 그동안 캠코가 보유해 온 채권이 채무자만 볼 때 33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 모두 이번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7년 이상의 연체자들이고요. 대다수는 10년 이상 연체자들이고 그중에 20~30년 연체하신 분들이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연체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이들 모두 이번 회생 프로그램에 과연 해당되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혼선을 빚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알기로는 캠코 보유 채권도, 캠코 것도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매입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창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포함돼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힘들었던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용불량자가 7년이면 압류, 경매, 신용불량자 등으로 거래도 안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임금도 못 받기 때문에 알바도 못 한다. 이런 절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20~30년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좀 잘 판별해 가지고 구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회가 직접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추심사에 지출한 수수료가 1117억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추심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심이 아니라 회생을 중심으로 이것을 제대로 설계해 추심사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이미 몇 분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까는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전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법을 개정한다고 했다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냈는데요. 그사이 여러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작점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아시겠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됐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 가치 제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상법 개정에 있어서 여러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오늘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는 한 3개의 축으로 생각하는데요.

시장 그다음에 기업, 투자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결국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

장질서를 확립해야 믿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주주 가치, 결국 기업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성과가 나한테 향유되고 공유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재투자한다 그런 기업들의 마인드,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유 자금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그간 우리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아 온 문제들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미 서면질의와 지금 본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후보자님을 비롯한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실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보다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까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닭볶음면을 계기로 삼양식품에 투자한다거나 BTS로 인해서 하이브에 투자하는 사례처럼 우리 금융당국이나 거래소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선불충전금 관련해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선불충전금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교훈을 얻어서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또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라든지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했는데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은 선불업자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금융위원회는 그렇게 한 사유로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 철수라든지 파산의 위험이 더 큰 것이 사실 저는 걱정인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불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한 보호까지 계을리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측면, 그러니까 안전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암만해도 생태계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어쨌든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선불업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의 파산,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 내용으로 유의사항을 적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선불업자 미등록 업체 사용 피해를 피해자한테 약간 좀 전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제가 선불충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라는 회사가 선불충전금 서비스 에이블리 머니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또 최근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의 2024년도 12월 30일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본총계가 -522억 원으로 나타나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에이블리가 이런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혹시나 아까 말한 제2의 머지포인트라든지 티몬·위메프 사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그리고 선불충전금과 관련해서 시효기간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정문 위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시효가 되더라도, 임박하더라도 미사용 잔액, 그 고객에 대해서 소멸시효 고지 의무라든지 또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미사용 잔액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만료 금액이 무려 2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10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는지, 환급이라든지 사용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憲昇 위원** 후보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퇴직 후 3년여 동안에 9개 기관에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하도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색깔 죽 보시면 알겠는데 2022년부터 25년 8월까지 9개 기관에 겹치기 근무를 했는데 이 중에 보면 처음에는 한두 개로 시작을 했다가 2023년도에는 세 군데, 2024년 네 군데, 급기야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6개 기관에 겹치기 근무를 하면서 한 달 수입이, 물론 세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엘에프 사외이사 550만 원, CJ대한통운 사외이사 716만 원, 고대 특임교수 216만 원,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300만 원,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300만 원, 한국금융연구원 165만 원, 토클 2247만 원을 매월 받았습니다.

사실 공직자로 계실 때는 한 천 몇백만 원 받으셨는데, 우리 국민 정서상 보기에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는 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는 데 가서는 기여도 하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전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비쳐질 수 있는……

○**李憲昇 위원** 후보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삼프로TV 운영사로 널리 알려진 이브로드캐스팅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투자 유치 및 상장 과정에 후보자의 이름과 이력을 활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브로드캐스팅에 재직하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억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22년 10월부터 한……

○**李憲昇 위원** 24년 2월까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누가 먼저 취업을 제안했습니까? 후보자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브로드캐스팅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브로드캐스팅해서 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초창기,

이제 막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인데 관심도는 있지만 경영체계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걸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험 기업들을 옆에서 둘봐 주고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무턱대고 그냥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문이네요, 그 대표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김동환 대표랑 제가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좀 제가……

○**李憲昇 위원** 좀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일하셨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연봉은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원래 월 500으로 계약했는데 회사 사정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그래서 월 300 받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310만 원 정도 평균 나오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혹시 투자 유치나 상장에 성공했을 경우에 스톡옵션이라든지 그런 거 제의받은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전혀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실제로 제의를 받았는데도 실행 안 한 그런 사례도 없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전혀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왜 그 회사에서 후보자님을 영입하려 했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회사가 기본적으로 경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환경적 전략적 고민들을 하고 그럴 때 제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험이 많고 그런 것들이 기업경영할 때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 판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지요.

○**李憲昇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머니투데이에서 ‘삼프로TV는 상장을 앞두고 왜 두 사람을 영입했나’, 다른 대표를 하나 영입을 했는데 그분은 금감원에서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으로 일하다가 여기에 대표로 취임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이리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시기는 이브로드캐스팅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코스닥 우회상장을 시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업체가 후보자와 금융감독원 팀장 영입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금융당국의 인허가나 감독 과정에서 특별한 신뢰와 영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 인식시키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업체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착시를 일으켰고 또 기업가치가 과대 포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부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주가 12명인가 돼서 과점주 주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기업가치라든지 전략이나 이런 걸 보지 거기 사외이사가 누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 결정이 바뀌

고 그러는 거는 투자 결정에서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실제로 후보자께서 2022년 10월, 입사한 직후인 2022년 10월 달에 이브로드캐스팅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가치를 3000억으로 평가받으면서 100억 원 투자를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후보자께서 입사하신 직후인 10월 달, 입사 2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7개월 후에 그 해당 업체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예상 시가총액을 2440억 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이익 58억 원 대비 PER이 42배 수준입니다. 투자 유치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고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브로드캐스팅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상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상장 안 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그 당시 사외이사를 하든지 감사위원을 하셨는데 이런 과도한 기업가치 산정하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기업가치 산정은 별도의 공식이나 주관사라든지 다 나름대로 해서 만드는 게 있고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2월 달에 퇴사를 하셨는데요, 3월 달에 상장이 미승인됩니다. 그래서 투자기관들이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산업은행 100억 원은 상장됐으면 대박을 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주식으로 남아 있고 아직 투자금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애 대해서 후보자께서 감사위원까지 하시고 사외이사까지 하셨으니까 일말의 사과내지는 무슨 언급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소수의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투자하고 의사결정한 것을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기 투자에서 자기 책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상장을 해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투자해서 될 하지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께서 거기 사외이사로 등재를 안 했다면 산업은행 같은 데서 무려 1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저는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한 명 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산업은행 외에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투자를 얼마 유치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것은 이사회나 거기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경영진이 계속,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위낙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서 서로들 투자 들어오겠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후보자하고 생각이 다른 게 비슷한 피해 그룹 보니까 한국경제TV는 그 당시 시총이 1400억 원이었고 PER도 15.6밖에 안 됐고 SBS도 시총이 4700억밖에 안 되고 PER이 3배였습니다.

저는 금방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 위원 후보자님, 중금리대출은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금융 안전망이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시중은행은 물론이거니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카드·캐피탈사 모두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신용자 대출은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활성화를 강조했음에도 시장은 사실상 봉고 직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사잇돌대출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 공급 실적을 보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들의 신규 대출액은 무려 658.6%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겹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상호금융권 역시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신협은 15.5% 줄었고요.

결국 중저신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상호금융과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제도권에서 외면 받은 중저신용 차주들이 사실상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해 말 기준 3년 만에 160%나 증가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이러한 고신용자 쏠림현상을 이제 수장이 되시면, 위원장이 되시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쳐 나가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신용도에 따라, 결국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도에 따라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되고 또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면 사실 빈틈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고신용자는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고 중신용자는 중간 정도, 저신용자는 높아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접근성은 좀 만

들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아예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업권 간에 그것을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하고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이게 결국은 또 부동산 대출에서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저신용자나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더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정책적 대안들을 좀 마련해서 이런 갭들을 줄이고 정말 내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공통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것인가,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2년에 혐의를 포착해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보고서'라는 문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조사한 적 없다'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자료 협조 요구에 불응해 가지고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내부고발을 하셨어요, 금감원에서. 결국은 내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이첩받았음에도 꼬박 7개월을 늑장 부리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올해 4월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심복인 이복현 원장이 있을 때는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수장이 되시면 이러한 금융질서를 망가뜨리고 공정거래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기관 스스로 하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수장이 되시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것은 현재 특검에서 그 부분까지도 아마 조사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영 위원** 그리고 벼젓이 12년의 자체 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장이 조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위증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가지고 처벌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마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때 그 부분까지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허영 위원** 아니,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금융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제가 있는 동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허영 위원 진실과 정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또한 제가 앞서 흠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사모펀드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개선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6월이 연구용역 만료 기간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 앞의 개요 세 장만 제출을 했어요. 지금 제본 중이어 가지고 못 준대요.

연구용역 개인 돈으로 했습니까? 원장 돈으로 했어요? 위원장 돈으로 했습니까? 국민세금 쓰는 것을 국민의 예산 심의권이 있는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2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하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나 모든 이러한 추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고도 제출을 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버젓이 세금써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흠플러스 사태가 이렇게 끝 간 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내용을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하라는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지요. 다만 이것은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장이 돼서 8월……

○허영 위원 2개월이나 연기가 됐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래서 8월 말에 끝나서……

○허영 위원 제본 상태면, 제본하느라고…… 그러면 프린트해 가지고 제본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허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도개선안 마련하실 때 해외 대형 사모펀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 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닙니다.

○강준현 위원 서민금융제도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서민금융제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재원이라고 봅니다. 이게 민간 출연은 한시적이고 또 매해마다 정부가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차관 시절에 아마 이 문제를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제가 차관 때는 예산을 담당하지 않고 정책을 담당해 가지고요.

○강준현 위원 지금 이렇게 민간·정부 출연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금이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인데 만약에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서민금융기금, 최우선 과제로 둘 의향이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제가 주질의 시간에 스테이블코인 말씀 나누다가 그쳤는데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은 하여튼 저번에 제가 신속성, 현실성, 실용성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우선 시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다양한 방안들이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STO가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STO는 사실상 뭐든지 증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 평가가 좀 어려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깜깜이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기존의 증권이나 채권을 토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거를 토큰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가 같이 가야 되는 그 두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아까 주질의 시간에도 보면 제가 스테이블코인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나름의 소신, 나름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니, 스테이블코인 아까……

○강준현 위원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 원칙이나 철학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보겠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다 생각도 있고 준비도 돼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나중에 정기국회니까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 차원에서 앞으로 비전, 과제 등등 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저희 위원도 보면 전문성이 높으신 분 많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내 STO인데,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이 보면 발행·유통을 지금 동시에 할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준현 위원 금융위가 지금 정책으로 보니까 겸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이게 암만 해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행과 유통은 분리해 놓는 것들이 보통 투자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시장에서 상당히 저항이 세던데 시장 상황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런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자칫 이게 과도한 규제로 비쳐서 시장의 저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되시면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 남은 시간.....

○위원장 윤한홍 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한 7분쯤 넣어 보세요.

후보자님, 우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커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빈다고 이제명 정부에서 많은 비판을 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하면서 금융권에서 지금 많은 돈을 양출을 하고 있어요. 배드뱅크 만든다고 하면서 얼마를 출연받지요? 4000억?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앞으로 국민성장펀드 만든다고 하면서 또 양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양출이라기보다는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런데 국민성장펀드 그거는.....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교육세는 0.5%에서 1%로 올렸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또 최근에는 뉴스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아무 책임 없어도 그냥 다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게 예대금리차가 커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그러면 결국은 예대금리차가 크면 금융권에서 이익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익 나니까 또 양출하고 이게 시장원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금리를 낮춰야 되지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예금금리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갑출하게 되면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기본 금융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돼요.

그런데 최근에 8월 말에 난 언론 기사를 봤습니까?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금금리가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왜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더 올라갑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대출금리는 거의 플랫하고 예금금리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같은 논리 아니에요? 예대금리차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의 수익이 더 늘었다고 나와요.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강제 방법을 써 가지고는 시장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나 공산주의 경제로 간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2년, 3년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을 못 하도록 하는 은행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해서 지금 본회의에 올려 놨습니다. 그것도 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거예요. 법률로써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소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 우리 대기업들 다 데리고 갔었잖아요. 얼마 투자한다고 했지요, 미국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미국 투자는 한미 협상을 때 제가 3500억 불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직접투자가 1500억 달러고 다른 방법, 펀드나 이런 것 해서 다 합치면 한 5000억 불 이상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국내에서도 대기업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엄청난 상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괜찮고 좋은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영자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앞으로 투자하기 어려워졌다고. 그다음에 또 노란봉투법, 국내에서는 이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미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대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는 경제전문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권력이 무섭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소신이 안 보여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부처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쪽으로 휩쓸려서, 지금 일방적으로 휩쓸려 가고 있잖아

요. 경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효과가 3년, 4년, 5년 후에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빚을 400조를 내서 써 가지고 그 물가상승 효과가 얼마나 겁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경제정책 잘못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 적게 풀었느냐가 3년, 4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걱정이 돼서 다들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 이재명 정부가 잘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오늘 보니까 소신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제가 후보자가 주식을 산 걸 한번 봤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 주식이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 그래 가지고 200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에요, 탈원전하면서 두산 그룹이 부도날 지경까지 가서 두산건설도 팔고 두산에서 알짜배기 회사들 엄청 팔고 겨우 살았어요. 원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6만 원 넘어갔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살아 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경제비서관 하신 분이 그때 2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놔줬다가 지금 와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사는 걸 보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 탈원전 할 때, 두산중공업 죽어 갈 때. 내가 그 주식 산 걸 보고 도대체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인 강력하게 규제했잖아요.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주식 산 것 보니까 미국의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 주식 샀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샀다가 팔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신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본다는 게 내 눈에 보여서……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금융의 최고 대통령입니다. 큰 방향이나 큰 원칙이나 큰 출기를 가지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드린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추가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양수 위원 예, 그럼요.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후보님, 사외이사 감사위원 이런 것을 여러 기관에서 겹치기로 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이브로드캐스팅에서 열두 번의 안건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엘에프에서 천한 번의 안건회의가 있었고 CJ대한통운에서 스물한 번의 안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한 번 참석하는 것을 총액으로 나눠 보면 수백만 원의 고액 회의 수당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열두 번, 천한 번, 스물한 번의 안건회의에서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찬성 거수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있어요.

후보자가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그런 금융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실제로 그 안건이 논의가 될 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 전에 실무자들과 별도의 회의를 해서 계속해서 제가 납득이 될 때까지 제가 물어보고 따지고 자료 요구하고 그런 상황하에서 제가 자신 있을 때 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되는 거지 당장 그 회의장에 덜렁 가서 거기서 의사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후보께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을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3년 만에 재등판하시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이양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지요. 특히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엄청 올랐는데 당시 기재부1차관이던 후보자께서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종부세가 5조 7000억 원이 부과됐고 그 이전에 비해서 대상 인원은 42%가 늘었고 또 세액은 3.2배나 늘었고 또 실수요 1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용을 내느라고, 수입도 없는데 집 하나 덜렁 있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3년 만의 등판에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 부담과 피해를 떠안은 국민들께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거기에 저도, 물론 그때는 국토부도 주관이 되기도 하고 어디도 주관이 되기도 하지만 저도 크게 보면 그 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 실망드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혹시라도 98%의 국민은 괜찮다, 1~2% 국민은 좀 힘들어도 된다 이런 결정은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상훈 위원** 예.

후보님,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서 금융사들에게 돈을 빼돌렸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채무자의 신청절차 없이 장기연체자의 빚은 무조건 그냥 탕감시켜 준다, 국민 세금으로. 성실하게 채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요?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도덕적……

○ **김상훈 위원** ‘은행 대출을 받았으면 오랫동안 안 갚고 있으면 그냥 탕감될 텐데 괜히 어렵게 장모님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후회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뭐고 그냥 은행 대출받아서 무조건 안 갚고 있으면 탕감시켜 준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7년 동안 연체하고 5000만 원 미만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쉽게……

○ **김상훈 위원** 소득 조사 대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박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빚을 못 갚고 있으면 탕감시켜 준다, 문제 있지요.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래서 도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걸러 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걸러 낼 거고 말씀하신 그 우려 있는 부분들은……

○ **김상훈 위원**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금융 전문가들이.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그래서 소득·재산 그걸……

○ **김상훈 위원** 채무자의 신청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데 도박빚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사업대출 같은 것, 사업자 업종이 그런 쪽에 있는지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을……

○ **김상훈 위원** 채무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연체하면 그냥 빚을 탕감해 준다, 국민 세금으로?

금융사들은 대부분 상장사입니다. 그런 금융사들한테 돈을 그냥 이렇게 빼돌 받아서 하면 주주들 입장은 뭐가 되지요? 시장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금융사들도 사회적……

○ **김상훈 위원** 금융위원장 되시면 진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혁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윤한홍** 안 하지요?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안 하시지요?

○ **이인영 위원** 예.

○ **위원장 윤한홍** 추가질의 안 하시고.

이정문 위원 가셨고.

이현승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李憲昇 위원** 예, 해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3분.

○**李憲昇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한홍** 예, 3분 하세요.

○**李憲昇 위원** 후보자님,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하고 증권사들에 대해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공정거래위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위법하게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매우 모호하고 또 과징금 산정 근거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이 매우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 금융시장 안정성이라든지 투자자 신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다가 은행하고 증권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여러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까지 다시 중첩적으로 제재에 나서게 되면 이중 규제, 이중 처벌이라는 이런 불만도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꼭 필요합니까, 이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정부에서 일을 할 때 공정위 같은 경우는 조사라든지 이런 준사법적인 측면이 약간 있어서 거기서 하는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절차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도 이런 걸 할 때 관계부처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잘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앞으로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역할 조율을 잘하여 가지 고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李憲昇 위원** 마무리발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아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윤리와 책임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의 겹치기 취업, 재취업 논란을 비롯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높은 윤리 기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자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륜, 전문성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정책 경험을 했고 또 위기관리 역량은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기된 흡결에 대해서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 앞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성찰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청렴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신뢰가 확보될 수 있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 윤한홍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허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시간 3분 드리세요.

○허영 위원 후보자님, 제가 계속해서 최근 고려아연 사태하고 홈플러스 사태, 사모펀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구용역의 정책 개선 방향에 이게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꼭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개선 방향으로 추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해외 대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K 모, 칼 모, 어 모 이 대형 해외 운용사들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 바이어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작 해외 운용사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회사와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이 사모펀드들의 약탈적 인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몇 년 새에 국내 버스 운수업체들을 사모펀드가 인수해 가지고 배당 및 자산 매각에만 치중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해외에서도 사실상 요양시설·교도소·병원, 대형 소매업체 등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에 소비자 후생이 급속하게 추락하는 그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필수·공공 이 시설에 대한 사모펀드의 이러한 무자비한 장악행위, 매각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은행, 공제회 등 주요 LP, 투자자들이 GP 그러니까 운용사들의 성과와 비용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집계와 공개체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금융감독 인력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행안부나 기재부와 협력을 해서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뒷받침하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선사항 꼼꼼히 연구용역 결과하고 매칭해 가지고 잘 반영됐는지, 안 됐으면 꼭 보완해서 연구용역 과제와 함께 본 위원께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자녀로부터 자유로운 부모는 없을 겁니다. 특히 공직자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애들이 세 살 터울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세 살 터울인데 청심국제중학교부터 그리고 큰 자녀도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그리고 또 이은우, 아드님도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를 같이 간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저랑 같이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같이 갔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보받은 것도 있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보도자료도 저는 일부러 안 냈어요, 자녀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자료를 하고, 또 사실 지금 딱히 없어. 3년 전에 외할머니한테 5000만 원 증여받은 거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미국에서 4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체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후보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롯데카드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9월 1일 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파일 외부 인지 시점이 8월 31일이에요. 금감원이 초동 단계에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을 통해서 내부파일이 외부 반출 시도되었고 이 중 14일과 15일 각각 한 차례씩 2회 내부파일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내부파일 최초 유출 발생 시간과 롯데카드사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 간에 무려 17일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후보님,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금 유출 규모가 1~2GB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강민국 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후보 청문회 하면 이 정도는 알고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 또한 MBK 소유예요, 아이러니컬하게.

롯데카드사 고객 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67만 명입니다. 약 1000만 명 가까워요. 시장점유율이 약 10%, 국내 카드사 가운데 6위입니다.

후보자, 고객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질의 시간 끝나고 나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와 똑같이 지금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로 천 몇백 억의 과징금을 했다는데 아주 작아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당국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후보자, 고객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일단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일단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금감원, 금보원이 피해 규모 확인하고 있는데

진짜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후보자님께 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한두 개만 조금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배드뱅크 관련해서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도덕적 해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연체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6년 된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나도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계가 계속 나오는 대로 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아까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을 하면 정책이 나가니까 지금 말을 못 한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국은행과 충분히 의논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한국은행과 충분히 의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얼마든지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쓸 데가 있잖아요,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코인 거래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대일이잖아요, 달러하고.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를 디포짓(deposit)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달러가 미국 국채를 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화량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왜?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수요가 없어요. 왜? 그냥 원화를 들고 있으면 되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중국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겠습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 사요. 왜? 국제 무대에서 원화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 거래가 원화로 안 되잖아요, 국제 시장에서. 막 발행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하려면 원화를 디포짓해야 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국채를 발행할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되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빚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통화량이 잔뜩 늘어나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통화량 늘어나서 물가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할 거냐 비금융기관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일방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싶고, 바람 분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 효과는 나중에 3년, 4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장후보께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 달라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셨던 이춘석 의원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위원장 윤한홍 차명으로 주식거래했지만 또 주식거래한 것도 AI입니다. AI 주식이지요? AI 주식입니다. 그게 전부 다 AI 관련 주식인데 엊그제 정부예산 발표한 것 보니까 AI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 내부정보를 알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대통령은 주식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벌 받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오늘 너무 점잖게 순하게 잘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공부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이양수 위원 아니, 추가로 하나 할 게 더 있는데……

○위원장 윤한홍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만 딱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12시까지는 해야지 뭐 이렇게 일찍 끝나요?

○위원장 윤한홍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정책질의가 아주 원활하게 잘된 거지요.

○이양수 위원 보통 여당은 밤늦은 시간이면 초선들 위주로 앉아 계신데 우리 이인영 선배님, 박범계 위원님, 아주 존경합니다.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柳榮夏 위원 우리는 다 남았네.

○이양수 위원 우리는 야당이니까 당연히 남아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빨리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이양수 위원 시간 가고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질의하세요.

○이양수 위원 후보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금융지주사의 인사에 개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하지요. 금융지주회장 선임과 연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이 사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당국, 항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악습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거센데 아마 금융위원장께서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금융위원장보다 더 높은 선에서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와서 누구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세 곳이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취임 시에 금융지주회장 선임에 개입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개입하라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와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주를 제일 잘 반영하고 또 회사에 제일 필요하고 능력이 있고 신뢰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그런 지배구조가 돼서 승계 시스템이라든지, 누가 봐도 납득하고 누가 봐도 인정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선임되고 선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그렇게 진행시켜 주실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우리 또 할 수 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 마지막이니까……

○**김남근 위원**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께서 여당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삼성생명이 70~80년대 유배당 보험들 판매해 가지고 배당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 한 백삼십만 이렇게……

○**김남근 위원** 13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계약 전으로 157만 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건이지요, 그 당시에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삼성화재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만 그로부터 36조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의하면 그 가치 상승한 것을 보험금 충당이나 이런 데도 사용을 해야 되고 비용도 사용을 해야 되고 주주한테도 배당을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자한테 유배당해 주기로 한 몫이 한 2.8조, 3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배당을 안 해 주고 있어요. 70~80년대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거의 한 70, 80이 다 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40년, 50년이 되도록 배당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정의에도 어긋나고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삼성생명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에 대한 계 많지가 않은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전체 삼성전자 주식의 8%가 넘으니까 그런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상 배당을 해 줘야 될 것들은 배당

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얹을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직 팔지 않아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배당을 지금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40년, 50년 동안 안 판 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삼성화재가 자회사가 되면서 회계 방식이 지분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배당 가능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탈회계라고 그러면 그걸 자꾸 예외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

일탈회계라는 게 용어도 좀 섬뜩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외 중에서도 진짜 일탈적인 예외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 회계 방식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삼성생명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마어마한 큰 회사에 적용된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이 점을 한번 명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의원실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이후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들 잘 유념하셔서 금융 분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회의 중에 구두질의가 아니고 서면질의해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도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억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고생하신 후보자 또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보자하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이억원**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 인사를 하고 가지 왜……

○**위원장 윤한홍** 아니, 밖에 잠깐 나가서 대기하셨다가, 나가서 대기 좀 하셨다가 끝나면 인사하고 가세요.

이상 인사청문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한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냥 오늘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예?

○**박상혁 위원** 오늘 해 주시지요, 뭘 또 모여요?

○**강민국 위원** 부결이야, 부결.

○**위원장 윤한홍** 아직 작성이 안 됐으니까……

○**강민국 위원** 오늘 하면 부결해야 돼.

(웃음소리)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아직 시간도 있고요. 또 우리 5일 날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날 앞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한홍** 예, 그러니까 간사님들 미리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한창민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이억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출석 증인**

김세완(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오규식(주식회사 엘에프 대표이사 부회장)